



이달의 포커스 뉴스

베트남 3분기 경제 13.7% 성장, 연간 성장률 목표 초과 달성 예상 **2P**

<기업탐방>

“**팽남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놀랐습니다**” by 팬코팜탕 **18P**

☑ 베트남 해외시장뉴스·월간 뉴스·프로젝트 동향	2
☑ <팀코리아 참여기관 소개>	한국가스공사 15
☑ <기업탐방>	팬코(팜탕) 한철준 법인장 18
☑ <노무> 베트남 노동조합	전현우 변호사 23
☑ <법률 에피소드> 베트남 내 차명으로 사업(3) 김유호 변호사	25
☑ <통관>	FTA활용지원센터 박민설 관세사 28
☑ 금월의 유망 성 투자 정보 <닌빈성>	31
☑ 베트남 및 아세안지역 주요 경제 지표	39
☑ 사업안내 및 공지사항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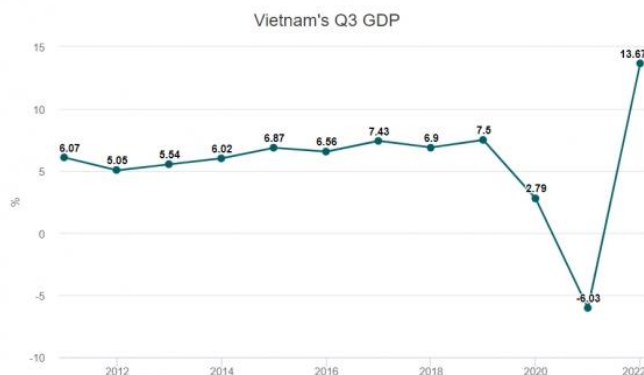
베트남 3분기 경제 13.67% 성장, 연간 성장을 목표 초과 달성 예상

- 올해 9월까지 경제성장률 8.83% 달성
-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치(6~6.5%)보다 높은 8%대 달성 가능 전망

베트남 3분기 경제성장률 발표

베트남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베트남 경제는 8.83% 성장했고 특히 3분기는 13.67%를 기록하며 지난 11년 중 가장 큰 성장을 기록했다. 올해 전 세계가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베트남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지난해 3분기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인한 봉쇄조치 등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로 -6.03%를 기록한 데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다. 또한 2018년 시작된 미·중 무역분쟁과 중국의 엄격한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중국에서 넘어온 수요가 베트남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베트남 3분기 경제성장률(2011~2022)>



[자료: 베트남 통계청]

베트남 기획투자부는 최근 국회 상임위에 제출한 ‘2022년 사회경제적 발전 상황 및 2023년 계획 점검’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을 국회가 정한 목표치(6~6.5%)보다 1.5~2%p 높은 8%로 상향 조정했다. 세계은행은 최근 베트남의 올해 GDP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5.3%에서 7.2%로 상향 조정했고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베트남의 GDP 증가율 전망치를 4월 6%에서 7월 7%로 조정했다. 싱가포르 UOB(United Overseas Bank)는 최근 보고서에서 베트남 통계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을 인용하며 올해 베트남 경제 성장 전망치를 7%에서 8.2%로 상향조정했는데, 이는 지금까지 나온 전망치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영국 언론사 이코노미스트는 2019년 기준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중국을 떠나 다른 아시아 국가로 생산기지를 옮긴 대미 수출품 310억 달러(약 44조4600억 원) 규모 중 절반 가까이가 베트남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집계됐으며 ‘베트남이 탈 세계화의 승부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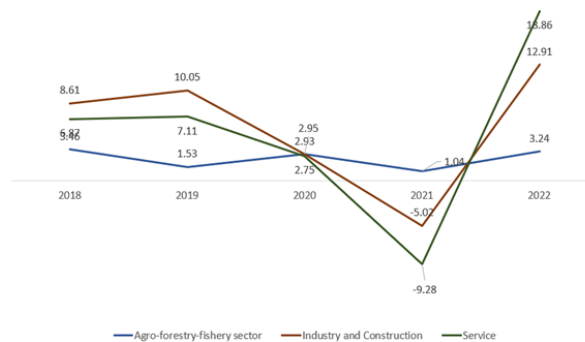
베트남 정부는 높은 성장세에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1%p 인상하는 등 물가 관리 선제 대응에 나섰다. 베트남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3.94%, 작년 12월 대비 4.01%로, 베트남 정부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4%와 근접한 수치이다. 식품, 에너지 등 변동성이 큰 항목을 뺀 근원소비자물가지수(PMI)는 전년 동기 대비 1.88% 증가했다.



부문별 경제성장 및 전망

올해 9개월간 부문별 성장률은 가공·제조 10.69%, 서비스 10.57%, 산업·건설 9.44%, 농림·어업 2.99%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서비스업이 18.86%, 산업·건설 부문이 12.91%, 농업 부문이 3.24% 성장했다. S&P 글로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의 9월 제조업 PMI는 52.5로 전월(52.7)보다는 소폭 낮아졌지만 12개월째 50 이상으로 제조업 경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베트남 제조업 부문은 3분기에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원자재와 국제유가가 떨어져 기업 우호적인 환경이 형성됐다. 상품의 소매 판매액과 서비스 소비액은 총 4100조 동(약 248조5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베트남 통계청은 지난 9개월 동안 대부분의 분야에서 호조를 보였으며, 특히 남부 주요 경제권역이 작년 3분기 코로나19 봉쇄조치로 큰 피해를 입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큰 폭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베트남 1~9월 부문별 경제성장률(2018~2022)> (단위: %)



주: 파란색-농림·어업, 갈색-산업·건설, 초록색- 서비스 / [자료: 베트남 통계청]

9월까지의 교역액은 총 5585억2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1% 증가했는데, 이 중 수출은 17.3% 증가한 2825억2000만 달러, 수입은 13% 증가한 2760억 달러로 65억2000만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기획투자부는 올해 교역액이 3분기까지의 기세를 이어가면 73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중 수출은 전년대비 9.5% 증가한 3680억 달러, 수입은 3670억 달러, 무역수지는 1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베트남은 환율 방어에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 동화 역시 달러 강세 속에 평가절하 압력을 받고 있긴 하나 다른 아시아 통화 대비 평가절하 폭이 적다. 올해 초와 비교하면 엔화 25%, 위안화 15%, 바트화 12%가량 하락했지만 동화는 4% 하락에 그쳤다. 베트남 동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경상수지 흑자, 풍부한 해외 송금액, 지속적인 해외직접투자(FDI) 등에 기인한 풍부한 달러 유동성 때문이다.

올해 성장률 전망에 대해 기획투자부는 2021~2025년 5개년 계획의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을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수는 연간 목표를 14.3% 초과하고 FDI(외국인직접투자) 실집행액은 최대 11.5% 증가한 220억 달러, 사회투자는 10.7%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초 국회가 정한 사회·경제적 발전 목표 중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노동생산성 증가율 목표 한 가지로, 목표치인 5.5%보다 0.3%p 낮은 5.2%로 전망했다.



<2022년 베트남 사회 경제 주요 발전목표>

	2022년 목표
경제 성장률	6.0~6.5%
1인당 GDP	3,900 달러
GDP의 제조업 비율	약 25.5~25.8%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연평균 4%
숙련근로자 중 학위 및 수료증 보유 비율	27.0~27.5%
숙련 근로자 비율	67%
농업 종사자 비율	27.5%
노동 생산성 증가율	5.5%
국가 건강보험 가입률	총 인구의 92%
빈곤 가구 비율	1.0~1.5% 감소
신규 농촌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사회 비율	전체 농촌 가구의 73%
인구 만 명당 의사 수	9.4 명
인구 만 명당 병상 수	29.5 개
도시지역 실업률	4% 미만
도시형 생활 고형 폐기물 수집 및 처리 비율	89%
중앙 집중 폐수 처리 시스템 보유 산업단지 및 수출 가공구역 비율	91%

[자료: 각종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에서 종합]

시사점

어려운 세계경제 속에서 달성한 베트남의 높은 3분기 경제성장률과 더불어 애플의 베트남 내 협력사 확대, 아이패드, 에어팟 생산공장 확대, 구글의 픽셀7 생산 등으로 인해 베트남이 미국 주도의 글로벌 경제 질서에 체계적으로 편입되고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4분기 베트남 경제에 관심을 뒤야할 부분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및 이에 따른 통화 및 물가 정책, 환율 관리, 생산현장의 노동력 부족 문제, 원자재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 등을 꼽을 수 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4분기에도 강도 높은 경제회복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혀 4분기에도 높은 성장률을 기대해볼 수 있겠다.





2022 한국-베트남 디지털 전환 포럼 참가기

- 올해로 2회차를 맞은 한-베 디지털 전환 포럼, 디지털 파트너십 확장에 초점
- ‘디지털 개발’, ‘기술 산업 및 디지털 인프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 구축’ 등을 모토로 아세안 지역 전문가의 통찰 공유

올해로 2회를 맞이한 베트남 국제 디지털 위크 2022(Vietnam International Digital Week-VIDW2022)는 국제적인 디지털 파트너십을 확장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관련 기관 및 관리 환경 완벽화’, ‘디지털 개발’, ‘기술 산업 및 디지털 인프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 구축’ 및 ‘사람들의 디지털 기술 증진’에 집중했다. 또한 아세안 지역 및 기타 파트너 국가들이 디지털화와 관련하여 직접 대화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 2022 한국-베트남 디지털 전환 포럼은 ‘산업과 스마트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한국과 베트남의 디지털 전환 정책 및 사례에 대해 공유하였다. 한국은 디지털 전환 전략이 최근의 경제 성장 둔화, 사회 분열 등의 사회 이슈, 기후 변화 등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세션1. 개회사

NIPA의 이은중 센터장은 개회사에서 베트남은 아시아에서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빠른 나라 중 하나이며 많은 성공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베트남 정보통신부(MIC) 무선주파수관리국 레 반 뚜언(Le Van Tuan) 국장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역량과 경험을 갖춘 한국 기업이 베트남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전략적 파트너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션2. 디지털 전환 상황 및 정책 구현에 관한 포럼

- (1) 베트남 ICT 산업 현황 (2) 2030년 전망 2025년 목표 ICT 산업 발전 전략
(3)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와 법적 체계 구축 (4) 한국 스마트 제조 9년, 베트남과의 협력 제안

세션3.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 기업

- (1) CMC 베트남 - 베트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허브 (2) LG CNS - 제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연구

시사점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국기업 B의 관계자는 KOTRA 하노이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2022년 한-베트남 디지털 전환 포럼은 양국이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디지털 전환 관련 전문가의 경험과 제언을 공유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베트남 정보통신부(MIC)는 정부 부처와 협업하며 베트남의 국내외 기업이 디지털 전환, 디지털 규제,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애플리케이션, 디지털 인적 자원에 대해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국은 디지털 전환 선진국으로서 디지털 전환의 모든 분야에서 베트남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큰 힘을 실어줄 것을 약속하는 자리였다. 양국이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협력을 거듭하여 베트남의 디지털 전환에 한국이 많은 부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를 기대한다.

○ 2022년 한국-베트남 디지털 전환 포럼 전체 발표 자료 링크: [22 DXForum - Google Drive\(클릭시 연결\)](#)





베트남 요소비료 산업 및 시장 동향

- 생산확대 불구, 러-우전쟁 여파 및 중국의 생산 차질에 따른 가격급등 및 수급불안정 심화

요소비료 생산 및 가격 동향

(생산량) 베트남의 연간 요소비료 생산량은 약 2백4십만 톤으로, 2017년부터 요소비료 생산 기업들의 설비 확충 및 생산량 증가로 초과 공급이 발생해 잉여 생산분은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가격 동향) 2021년 10월 중국의 비료 수출 제한 조치 및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요소비료의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베트남 국내 요소비료 가격 또한 급등했다. 이와 더불어 해상 물류 가격의 상승에 따라 수입 요소비료와 국내 생산 비료의 가격 차이도 더욱 벌어지며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에 따라 베트남 비료 가격의 변동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수출입 동향

(수입 동향) 2020년 베트남 요소비료 총 수입액은 약 2천 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80% 급감한 수치를 기록하였다. 베트남 요소비료 수입량은 2018년을 기점으로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요소비료의 생산시설 확충에 따른 공급 증가와 최근 친환경 유기 비료 사용이 재조명 받음으로써 화학 비료인 요소비료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수출 동향) 베트남의 요소비료 수출량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약 2천7백만 달러이던 수출 금액이 2020년 약 1억 8백만 달러의 규모로 약 5배 커지면서 가파른 증가세가 눈에 띈다. 특히, 2020년은 세계 최대 비료 공급망인 중국의 비료 생산에 차질이 생김에 따라 대체품인 베트남 요소비료의 수출량이 늘어나는 반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기업 및 유통구조

(주요 기업) 베트남의 요소비료는 4개의 주요 비료 제조업체에서 생산되고 있다. PVFCCo(페트로 베트남 비료 화학)과 PVCFC(페트로 베트남 카마우 비료)는 베트남 국영 석유 가스 그룹 페트로 베트남(Petro Vietnam)의 자회사이며, 각각 Phu My 및 Ca Mau이라는 제품명으로 연간 80만 톤의 요소비료를 생산-유통하고 있다.

(유통 구조) 베트남정부가 2022년 3월 발표한 '베트남 요소비료 기업 및 생산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내 비료 생산기업은 841개사이며, 이중 75%의 기업이 남부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대부분이 다수의 판매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점에 물품을 진열 및 판매하는 구조를 띄고 있으며, 전국구 유통업체보다는 중부, 남부, 북부 지역별로 특화된 유통업체가 주를 이룬다.





베트남 스타트업 관련 기술 및 투자 생태계 동향

- 2050년 넷제로 달성 관련 디지털 경제 및 스타트업 성장 생태계 구축 추진
- 스타트업 투자 자본 15억 달러 넘어서 연이은 유니콘기업 탄생여건 조성

베트남의 스타트업 생태계 투자 개요

지난 2분기에 발표된 베트남 “2021 혁신, 기술 투자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베트남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액은 총 15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2020년(4억5100만 달러)의 3배, 2019년(8억7400만 달러)의 1.5 배 수준이다. 또한, 1000만 달러 이상의 투자 유치건이 2019년에는 전체의 79%, 2020년에는 74%였던 것에 비해 2021년에는 82%를 차지하며 사상 최대 규모인 12억 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2025년에는 ‘디지털 경제’가 베트남 GDP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근 3년간 디지털 기술 관련 스타트업의 탄생 및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베트남의 유니콘 기업(1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스타트업)

베트남 대표 유니콘 기업 VNG는 2004년 게임 개발 분야와 관련해 설립됐다. 이후 지난 2014년 세계 스타트업 보고서에서 최초로 가치를 10억 달러로 평가받았고, 그 결과 베트남 최초의 유니콘 기업으로 분류됐다. VNG는 현재 4개의 핵심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1) 온라인 게임, 2) 연결 플랫폼, 3) 금융 및 결제, 4) 클라우드 서비스에 해당한다.

두 번째로, 2018년 설립된 스카йма비스(Sky Mavis)는 블록체인 기술을 게임에 접목하는 스타트업이다. 이 회사의 게임 중 사용자에게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액시인피니티(Axie Infinity, AXS)”이다. 이는 게임 주체자가 디지털 동물 세계에서 액시스(Axies)라고 불리는 귀여운 생물들과 싸우고 상호작용한다. 스카йма비스는 2021년 시리즈B 자금 조달 라운드에서 1억5200만 달러를 모금했다. 또한 지난 2021년 10월, 30억 달러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아 유니콘 기업으로 등재됐다.

세 번째로, 베트남 결제 솔루션 관련 회사 VN페이(VNPAY)는 2007년에 설립되었다. VN페이는 특히 대도시에서 QR코드 결제 네트워크로 사람들에게 널리 인식돼 있다. VN페이는 지난 2020년 11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SoftBank Vision Fund-일본, 사우디아라비아 합작 세계 최대 기술펀드)와 국책 투자펀드인 GIC(싱가포르투자청)로부터 거액의 자금조달 라운드를 거친 뒤 '유니콘 기업' 지위를 획득했다.

2022년 베트남 스타트업 및 기술투자 낙관 전망

베트남의 스타트업 시장은 기술선도적인 아이디어에 비해 열악한 인프라 시설 및 정부 자원 투입의 부족 등으로 난관을 겪어왔다. 특히나 1년에 200건도 되지 않는 낮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높은 경제성장을 및 투자자 유입을 기반으로,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세계의 섬유공장 베트남, 주문 감소에 따른 타격

- 최소 올해 말 최대 내년까지 어렵다는 전망도 제시
- 단기적인 해결책과 더불어 장기적인 내실 다져야 할 때

섬유, 의류, 가죽 및 신발은 베트남의 주요 수출 산업이며 세계 시장의 변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올해 들어 ‘베트남, 대미 섬유 수출 10년 만에 최고치 기록’, ‘베트남 섬유 및 의류 산업 9월까지 수출액 350억 달러 달성…전년 대비 21% 증가’ 등 베트남 현지 언론에서 섬유 수출 관련 긍정적인 기사가 이어졌지만 현재 업계에서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베트남 섬유 주요 수출시장

○ 미국: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물류난 및 재고율 증가

미국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모기지 비용이 증가해 소비자의 구매력을 제한하고 있다. 가스, 식음료 비용이 상승해 일반 소비자들이 쇼핑 지출을 줄이고, 상품보다는 여행, 외식 등에 지출을 늘리고 있어 패션 브랜드의 재고가 쌓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의류 수출 대목인 11월 추수감사절, 12월 크리스마스 및 연말 홀리데이 시즌을 포함한 F/W(Fall + Winter)시즌 주문이 예년에 비해 30~40% 급감했다.

○ 유럽: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효과 확대, 소비자들 허리띠 졸라매…

영국 및 유로존의 경우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시작된 유로존의 에너지 위기로 인해 유로존의 에너지 가격은 올해 들어 40% 이상 상승했고, 이에 따라 독일 7.3%, 이탈리아 7.2%, 스페인 8.0% 등 2022년에 높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

전망

이미 베트남 진출 섬유 및 봉제 분야 한국기업의 가동률은 30~40%에 머물고 있으며, 대부분 주 4일 가동으로 축소 운영되는 상황이지만 가동률이 추가 저하될 우려도 있다. 베트남 섬유·의류협회(VITAS)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의류 및 신발 부문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으나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주문량이 감소할 전망이다.

업계가 제안하는 대처 방안

베트남 섬유·의류협회(VITAS)는 현재 HCMC Textile, Embroidery, Knitting Association 등에서 최근 인도, 파키스탄 파트너와 협력해 주문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 자체적으로도 시장을 다각화하고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기술 혁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패키징, 원사, 직물, 봉제 생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럽 국가로의 수출 촉진을 위해 녹색 및 재활용 제품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기고] 중소기업, 베트남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어떻게 진출할 수 있을까?

경기수출기업협회 신덕화(메이트코리아 대표) 이사

베트남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특징

동남아시아 국가 중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식품 수출을 위해 할랄(HALAL) 인증이 필요하지만 베트남은 할랄 인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품 성분에 비교적 구애받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 시 각종 첨가제나 캡슐 형태의 포장에 젤라틴이 사용되는데 젤라틴은 보통 돼지나 소 등 가축에서 추출한 것을 사용하므로 종교국가에는 수출 자체가 금지된다. 이런 점에서 베트남은 그런 제약이 없어 타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출이 용이하다.

건강기능식품 시장 현황

베트남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매년 2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이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생산국은 미국, 호주, 일본, 등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한국은 중하위권이다. 그러나 국가 선호도보다는 중소기업이 베트남 시장에 진출할 준비가 되어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시장의 발전 가능성,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등의 정보는 시장의 잠재력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이 시장에 맞는 제품을 준비하고 바람직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는 유인: 인지도, 유통망, 단가, 품질

현재 수출 전인 우리 제품이 상기 4가지 요인 중에서 경쟁사 보다 무엇이 비교 우위에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개발자 생각에는 효과있는 제품을 공급해야 한다는 사명이 있지만 고객입장에서는 그 제품의 효과성을 복용하기 전에 알기 쉽지 않고 특히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경쟁사 제품과 효능을 기준으로 비교우위를 정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 또 고객은 예방효과 혹은 나중에 건강에 도움을 줄지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품의 성분도 중요하지만 제품의 인지도와 이미지가 제품 판매에 더 큰 영향을 준다. 결과적으로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사의 경쟁력은 의미가 없다.

중소기업을 위한 방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다. 혼자서 약하니 협력하자는 의미이고 시장에서 약자는 바로 우리 중소기업이다. 예산, 인원, 제품군 등이 경쟁사에 비해서 부족한 상황이며 시장에서는 대기업 제품도 우리 제품의 경쟁 제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서로 협력하지 않고 흩어져서 베트남 시장진출을 시도하다가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은 받지 못하는 지자체의 지원을 중소기업은 받을 수 있다. 관내 수출협의회 중에서 동종 업계인 건강기능식품업체들이 회의를 통해서 협동이 필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지자체는 매년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과 계획을 실행 중인데 이런 사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10년 동안 관내 기업들을 지원한 사례를 확인하고 지원 후 현재까지 수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기고] 비정상 철수에 대한 베트남 법률 관계

법무법인JP 베트남 지사장 전현우 변호사



비정상 철수에 대한 베트남의 법률 관계

비정상 철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베트남의 담당 관청은 어떻게 해당 사항을 인지하고, 또 어떤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될까요? 투자법에 관한 결정문 Decree 118/2015/ND-CP 제42조는 투자등록당국이 투자자와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 프로젝트를 중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투자등록당국인 공단관리위원회, 계획투자국 등 관련 관청이 베트남 법인을 통해서 혹은 직접 투자자에게 연락을 취했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연락두절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담당관청에 대해 연락을 취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게 됩니다. 만일 통지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도 투자자의 연락이 없는 경우 투자등록당국은 투자자 본국의 베트남 외교 공관을 통해 투자자에게 연락을 취할 것을 요청하고 해당 사항을 공시하게 됩니다. 즉, 베트남에서의 사항이 한국에도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두절사태가 지속되는 경우 투자등록기관은 프로젝트 중단에 대한 결정문을 발행하고, 투자자의 프로젝트를 취소하게 됩니다. 이후 잔여재산에 대한 부채자 관리 절차가 개시되고, 세무서의 강제징수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토지 및 건물 등의 자산이 있는 경우 관할 당국에서 토지 회수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노동당국의 경우 해당 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비정상 철수에서 가장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경영자에 대한 책임발생 여부일 것입니다.

베트남의 청산 절차

위와 같은 비정상 철수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정상 철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어렵다는 점일 것입니다. 특히 중국의 청산절차에 대한 악명은 매우 유명합니다. 베트남에 투자를 고려하시는 투자자들 중에서는 중국에서의 경험으로 베트남 또한 중국과 같은 환경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초 투자시부터 배당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본사에서 대부투자를 진행했을 경우 원활하게 상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 베트남은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진행하셨을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진행을 하셨어야 하는 점은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부투자시 적절한 신고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송금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하지 않으셨거나, 신고기간이 도과되었거나 미비한 신고를 하셨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절차를 잘 숙지하시고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청산절차 상담 시 중국의 경험에 비추어 혹은 베트남의 청산절차 또한 매우 어렵고 심지어 불가능에 가깝다는 소문만 듣고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청산절차는 하나하나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전혀 문제없이 진행가능하며 남은 잔여재산 역시 문제없이 본국으로 회수해 가실 수 있습니다.





▶ 박닌성-구미시 협력 강화

10월 20일 박닌성에서는 베트남 박닌성과 한국 구미시의 경제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는 경제 포럼 행사가 개최됨. 올 9월까지 박닌성은 세계 39개국, 16개 산업 분야에 투자를 받았으며, FDI기업의 박닌성 누적 투자액은 약 230억 달러에 달함. 이 중 한국은 박닌성에 누적 투자 프로젝트 951개, 누적 투자액 142.5억 달러로 박닌성 FDI 투자의 62.0%를 차지하는 최대 투자국임.

[Nhan Dan, 10. 20]

▶ 호치민시, 5년내 가장 높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호치민시 기획투자국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 호치민시의 외국인직접투자(FDI) 누적 지출액은 15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6.2% 증가하였으며, 5년내 최고치를 기록함. 반면 신규 허가된 프로젝트의 규모는 7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FDI 1위 국가의 자리는 싱가포르가 차지하였고 한국, 일본이 뒤이어 2위, 3위를 차지하였음. * 주요 투자 분야는 가공 및 제조 산업, 부동산업, 기술 및 소매 판매 등임

[The Saigon Times, 10. 19]

▶ 투티엠 4(Thu Thiem 4)다리, B.O,T(Build-Operate-Transfer) 형식으로 건설 예정

호치민시 교통부는 2024-2028년 건설 프로젝트의 일환인 투티엠 4(Thu Thiem 4) 다리를 B.O.T(Build-Operate-Transfer)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건의하였음. 해당 프로젝트 시행을 위해 5조 3000억 베트남 동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다리는 투티엠 신도시, 7군 및 투득 시를 연결할 것이라고 전함. 투티엠 4 다리의 건설은 교통혼잡 완화 및 도시발전을 위한 것이며, 당초 민간합작(PPP)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기타 국가 건설 프로젝트 지연으로 B.O.T 형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건의됨.

[The Saigon Times, 10. 19]

▶ 빈패스트, 프랑크푸르트, 파리, 암스테르담 등 유럽 3개 도시에 해외 법인 개설

빈패스트는 2022년 10월 18일 파리 모터쇼를 통해 유럽사업계획을 발표하고,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프랑스의 파리,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각각 해외 법인을 개설하여 유럽 고객을 공략 하겠다고 밝힘. 프랑크푸르트 법인 이외에 독일에는 쾰른, 베를린, 뮌헨, 함부르크에 쇼룸을 운영할 계획이며, 프랑스에는 파리 이외에도 니스, 마르세유, 르네, 몽펠리에, 메츠 등에 쇼룸 운영을 계획중이고, 네덜란드에는 덴하그, 로테르담에 각각 쇼룸 운영을 계획 중임.

[Nhan Dan, 10. 19]

▶ 베트남 중앙은행(SBV) 동화환율 변동폭 기존 3%에서 5%로 조정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10월 17일 '베트남 동과 외화 간 환율 규정 결정서'(Decision No.1747/QD-NHNN)를 발행하고 동화 환율 변동폭을 기존 3%에서 5%로 조정함. 이는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 시중 은행들은 중앙은행이 고시하는 기준 환율의 ±5% 범위 내에서 거래 환율 조정이 가능함. 이번 환율 변동폭 조정은 약 10년만에 처음 결정된 것으로 중앙은행은 미국, EU등의 글로벌 금리인상 기조에 대응하여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성명함.

[Nhan Dan, 10. 17]



▶ 산업무역부, 5개의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PDP8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

산업무역부는 10월 13일 투자자들이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개 화력발전 사업을 제8차 국가전력개발 계획(PDP8)에서 제외할 것을 정부에 제안함. 제외가 논의된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은 ▲Song Hau 2(Toyo Ink Group) ▲Nam Dinh 1(ACWA Power, 태광파워홀딩스(주)컨소시엄) ▲Vinh Tan 3(EVN, Pacific Group, OneEnergy Asia Ltd., CLP Holdings, Mitsubishi Group) ▲Quang Trj 1(EGAT International Co., Ltd.) ▲Cong Thanh(Cong Thanh Thermal Power JSC)임. 산업무역부는 투자자들에게 만약 PDP8에서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유지하고 싶다면 상세한 자금 실현 계획서를 준비하여 10월 30일 이전까지 산업무역부에 제출하라고 요청함.

[Vietnam Investment Review, 10. 17]

▶ OECD-ASEAN, 지속가능한 공급망 협력 방안 논의

10월 17일 베트남은 'Connecting Regions: Partnerships for Resilient and Sustainable Supply Chains'를 주제로 OECD 동남아시아프로그램(SEARP) 공동 의장국으로 호주 및 OECD와 협력하여 OECD 장관급 공급망 협력 회담을 주최함. OECD와 ASEAN은 다음 6개 방향에 중점을 두고 안정, 지속가능성, 공정성, 평등, 공유 및 상호 이익의 모토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함. 구체적으로 (i) 구축, 통합 및 연결 경제 연계 네트워크 및 기존 FTA 활용을 기반으로 한 OECD 국가와 동남아시아 간의 공급망 연결 (ii) 아세안이 아세안 스마트 물류 네트워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프라 연결성 업그레이드 (iii) 중소기업의 역량강화 지원 (iv) 정책 기관을 구축하고 국가 거버넌스 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v) 글로벌 공급 허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인적 자원 개발 (vi) OECD와 동남아시아가 원활하고 편리한 상품 교역을 보장하는 평화로운 협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 이에 대해 팜 빈 밍 베트남 부총리는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하고 원활한 상품 무역과 이동을 보장하는 것이 모든 국가의 공통 관심사이자 책임임을 강조함.

[Nhan Dan, 10. 17]

▶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 2027년까지 400억 달러 도달 전망

Bain & Company와 Meta는 SYNC 연구팀과 함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6개국 약 1만 6,000명의 디지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20명 이상의 디지털 경제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종합하여 '동남아시아 디지털 소비자 : 새로운 단계로 진화' 보고서를 발간함. 이에 따르면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동남아시아 6개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인 연평균 28% 증가하여 2027년에는 400억 달러에 도달할 전망이다.

[베트남 정부포털, 10. 15]



▶ 베트남 올 1월~9월까지 교역액 5,570억 달러 돌파

베트남 관세총국은 FDI 기업의 교역액 3,877억 7,000만 달러를 포함한 베트남의 올 1~9월까지의 교역액이 5,579억 3,000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힘. 9월 16일~30일까지 교역액은 317억 6,000만 달러로 9월 1일~15일 보다 20.6% 증가함. FDI부문의 올 1~9월 교역액은 3,877억 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으며, 국내 기업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14.4% 증가한 1,791억 6,000만 달러를 기록함. 특히 올 9개월간의 수출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7.2% 증가한 2,823억 5,000만 달러에 이룸.

[베트남 정부포털, 10. 14]

▶ eTax 모바일 앱 다운로드 건수 17만 1,871건 돌파

재무부(MoF)는 9월 27일 기준 eTax 모바일 앱 다운로드 건수는 17만 1,871건, 모바일 앱을 통한 개인 납부 건수는 7만 4,765건, 모바일 앱을 통한 납부 총액은 3,200억 동(1,338만 9,120달러)이라고 밝힘. 전자세금신고시스템(eTax)은 전국 63개 성시에서 100% 구현되었으며, 기업의 경우 87만 3,297개사 중 99.93% 비중인 87만 2,701개사가 이용 중이라고 밝힘. '22년 1월 1일부터 9월 27일까지 접수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건수는 1,453만 2,945건, 전자납세서비스 등록 사업체 수는 86만 5,514개사로 전체의 99.11%에 달함. 동 기간 동안 기업은 eTax시스템을 통하여 285만 4,150건, 4,870만 7,107달러 규모의 세금을 납부함.

[Hanoi Moi, 10. 11]

▶ 아시아개발은행(ADB), 하노이 메트로 3호선에 5,475만 달러 투자

2022년 10월 7일 하노이 메트로 3호선 도시교통 지속가능성 강화 프로젝트 기공식이 개최됨. 하노이인민위원회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이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이 프로젝트는 하노이 시민의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ADB는 도시청정기술기금(CTF) 4,895만 달러를 포함한 5,475만 달러를 이 프로젝트에 투자함. 하노이 메트로 3호선은 남뜨리엠, 박뜨리엠, 꺼우저이, 바딩, 동다, 호안끼엠 등 6개 구에 걸쳐 고가 지상 구간 8.5km, 지하 구간 4km를 포함하는 총 12.5km 규모로 2027년까지 건설될 예정임.

[베트남 정부포털, 10. 8]

▶ 2022년 베트남 브랜드가치, 전년 대비 11% 증가한 4,310억 달러

매년 각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 순위 보고서를 발표하는 영국의 Brand Finance는 베트남의 국가 브랜드 가치가 전년 3,880억 달러 대비 11% 증가한 4,310억 달러를 돌파하고 전년 순위 33위에서 한 계단 올라간 32위를 기록했다고 밝힘. Brand Finance는 베트남의 거시경제 회복력과 앞으로의 경제성장 전망을 합산하여 이와 같은 가치를 추산하였다고 덧붙임. 올해 국가브랜드 가치는 미국(26조4,720억달러)과 중국(21조5,280억달러)이 전년과 동일하게 각각 1, 2위를 유지했으며, 독일(4조5,040억달러)은 일본(4조2,840억달러)을 제치고 3위에 오름.

* 참고기사: [Brand Finance의 2022년 국가 브랜드 순위 링크](#)

[베트남 정부포털, 10. 4]



(입찰정보)

1. 발굴 프로젝트 리스트

- Pac Nam 6.5MW 수력발전 프로젝트
- Ha Tinh시 폐수처리장 건설

* 발주처 담당자 정보 및 기타 세부사항 별도 문의(jinseul_y@kotra.or.kr)

2. 프로젝트 세부정보

- Pac Nam 6.5MW 수력발전 프로젝트

발주처	○ 기관명 : BAC KAN DEPARTMENT PLANNING AND INVESTMENT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위치 : Bac Kan 성 Pac Nam 군 ○ 규모 : 약 10.5백만 달러 ○ 프로젝트 단계 : 투자자 선정 중 ○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project has total capacity of 6.5MW with use land area of 31.7ha - With the investment of 02 units, the project is expected to supply electricity to the national grid with an average amount of 22.16 million kWh

- Ha Tinh시 폐수처리장 건설

발주처	○ 기관명 : HA TINH PROVINCIAL PMU OF INDUSTRIAL AND CIVIL WORKS CONSTRUCTION INVESTMENT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위치 : Ha Tinh 성 Ha Tinh 시 ○ 규모 : 약 35백만 달러 ○ 프로젝트 단계 : 투자자 모집 중 ○ 세부내용 <p>New construction investment of wastewater treatment plant will be include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2.8km of wastewater collection pipeline with diameter DN200 to DN600 - 13 wastewater pumping stations - 01 wastewater treatment plant with a capacity of 19,000 m3/day <p>The project is located on 9 wards of Ha Tinh city, the goal is to ensure that wastewater is collected thoroughly to the centralized wastewater treatment plant.</p>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아세안(베트남) 대표사무소

■ 한국가스공사("KOGAS") 소개

KOGAS는 청정 에너지인 천연가스의 공급을 통한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 및 복리 향상을 위하여 1983년 8월에 한국가스공사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KOGAS의 주요업무는 LNG 인수기지와 천연가스 공급배관망을 건설하고 해외에서 LNG를 수입하여 인수기지에서 재기화한 후 도시가스사와 발전소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LNG는 주로 중동아시아(Qatar, Oman, Egypt, Yemen), 동남아시아(Indonesia, Malaysia, Brunei), Australia, US, Russia 등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KOGAS는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복리향상을 위해 "전국천연가스 공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1년 말 기준, 단일기업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LNG를 수입, 판매하는 대한민국 공기업입니다. 국내에 5개 LNG 터미널(인천/평택/통영/삼척/제주)과 총 5,027km 가스배관을 운영중이며, 212개 시군, 19,250,000 세대(천연가스 보급률 약 85%)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해외 13개국 25개 Gas & Oil 프로젝트(탐사[4]/생산[9]/LNG[8]/인프라[4])를 투자·운영하고 있습니다.

■ 아세안(베트남) 대표사무소 소개

해외 각국에 해외 사업(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다수의 조직(법인) 중 베트남 대표사무소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운영 자산이 없는 곳에 설립된 영업조직이며, '21.7월 하노이 상공국으로부터 대표사무소 설립 승인을 받고 '22.1월에 개소(롯데센터하노이 동관 19층)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첫째, 베트남 및 아세안 국가 LNG 발전사업, 수소사업, LNG를 이용한 냉열사업(냉동창고, Data Centre) 그리고 바이오매스 사업 발굴 및 시장동향 등을 파악하는 것. 둘째, 베트남 중앙/성정부, 현지 기업 등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사업 기회(협력)를 창출하는 것. 셋째, 본사와 현지 사업 업무 코디네이션입니다.

■ 한국가스공사 대표사무소 업무 현황

첫째, 한국가스공사는 베트남 LNG 발전사업관련 Hai Lang(1.5GW, Quang Tri)와 Ca Na(1.5GW, Ninh Thuan)의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Hai Lang 사업의 경우, '21.12월에 투자자로 선정 승인되어 Feasibility Study(MoIT 제출용)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Ca Na 사업은 PQ(입찰사전심사)를 통과하여 입찰 참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Hai Lang GTP 사업 개요 >

- (위치) 베트남 중부 Quang Tri(꽝찌) 省
- (규모) LNG 발전 1.5GW 및 LNG터미널(연간 120만톤) 등
- (참여사) 한국컨소시엄(가스공사 20%, 남부발전 20%, 한화에너지 20%), T&T그룹(베)(40%)
- (상업운전) '28년 상업운전 개시 목표



둘째, 한국가스공사는 '20년 한국정부로부터 수소생산과 공급, 기술개발을 총괄하는 대한민국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잠재력이 풍부한 베트남의 지리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현지기업들과 그린수소 생산사업을 활발히 발굴 & 개발 중입니다.

셋째, LNG(Liquefied Natural Gas)는 천연가스의 대량 운송 및 저장을 위해 천연가스를 약 1/600로 압축해 만든 영하 162°C 초저온 상태의 액화가스이며 LNG를 기화(-162°C → 0°C)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열(Cold Energy)을 전기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조만간 베트남으로 LNG가 도입될 예정인데 LNG를 활용한 냉동 물류창고, Data Center 등 사업 발굴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넷째, 베트남 정부는 기후변화협약(COP 26)에 맞추어 CO₂ 배출을 줄이기 위해 왕겨(Rice Husk), 우드펠릿을 이용한 전력 및 수소 생산사업, 탄소배출권에 많은 관심을 두고 정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가스공사 대표사무소는 관련기관과 협업을 통해 글로벌 기후변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습니다.

■ 향후 계획

한국가스공사 대표사무소는 베트남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대규모 LNG 발전사업 추진과 신사업 개발에 중점을 둘 예정이며 새로운 에너지 전환시대를 대비하여 그린 수소, 냉열사업 등을 발굴하여 한-베 양국간 경제성장에 일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베트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월드비전 베트남과 '21년에 꽝찌성 식수개선사업(정수시설, 배수로, 화장실, 가정용 정수기)을 통해 607가구(약 3천명)에게 혜택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가스공사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베트남 지역주민의 생활 개선 및 소득 증대에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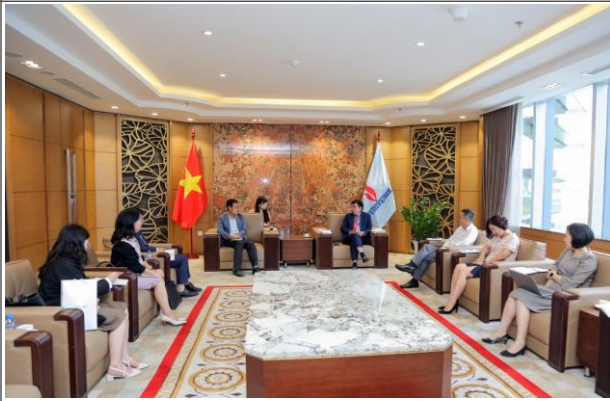
< Hai Lang 사업권(IRC) 수여식 행사 >



< LNG 냉열사업 협력(對. PV Gas) >



< 한-베 에너지 협력 면담(對. PVN) >



< 광찌성 지역사회 공헌활동(식수개선) >



<끝>



“꽝남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놀랐습니다”

팬코(пам탕) 한철준 법인장 인터뷰



한철준 법인장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팬코에 대한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팬코пам탕의 한철준입니다.

먼저 베트남 비즈니스 뉴스를 통해 팬코에 대해 소개하고 독자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 팬코는 아시아 2개국(베트남, 미얀마)에 최첨단 수직계열화(편직-염색-봉제 공정)를 갖춘 글로벌 의류 제조 수출회사로서 창업초기부터 기업의 핵심 역량인 D Q C S 운동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최신 소재의 연구개발(Development), 최고 품질의 제품 생산(Quality), 최상의 원가 경쟁력 확보(Cost), 납기 준수(Speed)에 전력함으로써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T-shirts, 점퍼, 원피스, 블라우스, 바지 등 다양한 니트웨어 제품들과 스포츠웨어와 같은 기능성 의류 등을 OEM 또는 ODM 방식으로 국내외의 주요 SPA기업과 ON/OFF의류브랜드 업체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한국 본사 및 해외 주재원, 그리고 해외 생산기지의 약 1만 6천여명 근로자는 1984년 창립 이래 일본시장을 비롯해 세계 시장 개척에 전력하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 다양하고 우수한 의류제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팬코팜탕(PANKO TAM THANG CO., LTD)은 광남성 탐키시 팜탕공단에 2015년 투자, 2016년 첫 생산을 시작하였고, 대지 300,000㎡ / 건물 200,000㎡의 규모에 원사를 매입하여 편직 - 염색 - 봉제의 수직계열 생산체제를 갖추었고 1일 28,000 ton의 폐수 처리가 가능한 친환경 의류 생산 공장입니다.

현재 7,000명의 근로자들이 합심단결하여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해야 한다’는 사명감, 그리고 ‘바로 지금 하자’는 열정과 ‘내가 먼저 하자’는 솔선수범, ‘한번에 하자’는 효율성 등 5대 정신을 바탕으로 팬코의 핵심 역량인 D Q C S를 성취해 가고 있습니다.



중국 청도, 평도 공장에서 철수하고, 생산설비를 이 곳으로 이전해왔다고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철수하게 된 이유와 이 곳 팜탕 공단을 선택하신 배경이 궁금합니다.

팬코는 1994년 중국 산둥성에 직접투자를 통해 생산기지 해외이전을 진행하며 20여년 동안 4개 법인의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수출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회사로 발전해 왔습니다.

2004년 중국의 WTO가입과 중국정부의 내수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중국 내국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서비스업종으로의 인력유출로 인한 노동인력난은 저희 팬코뿐 아니라 제조업 분야의 많은 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2002년 베트남 남부 빈중성에 투자하여 팬코비나를 설립, 중국과 베트남의 two-way생산 기지를 운영하며 점진적으로 베트남으로의 생산확대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5년 광남성 탐키시 팜탕공단에 팬코팜탕을 투자, 설립하여 베트남 중부지역 개발 정책과 더불어 광남성 정부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원으로 2016년 첫 생산이후 6년간 생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올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사업을 옮기시면서 만족스러운 점은 무엇이고 아쉬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투자 초기라서 그랬던건지 광남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었습니다. 물론 기업의 투자 속도와 비교해서 아쉬움도 있었지만, 고위관계자들의 열정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만족스럽다’라기 보다 베트남에서의 ‘좋은 점’이라면, 베트남 국민성의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지극히 주관적입니다) 첫째 밝은 미소와 인사성입니다. 무뚝뚝함에 익숙했던 과거 경험과는 달리 상당히 좋은 점으로 바이어들의 현장방문시 ‘첫인상’이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결성입니다. 물이 풍부한 나라여서인지 개인위생이 매우 철저하고 또한 청소하는 습관이 잘 되어 있어 제조 기업의 품질에 매우 중요한 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업장 및 제품 관리에 있어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품질향상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바탕이지요.

또한 아시아권의 젓가락 사용 문화 영향인지 손작업 기술에 능하다는 것도 좋은 점이라 할 수 있지요.

한편으로 ‘아쉬운 점’은 더운 나라여서 그런지 끈기가 약해 투자 초기에 결과물이 아쉬웠고, 환경에 대한 기준이 엄격한 반면에 환경관련 인프라는 부족해 많이 아쉬웠습니다. 또한 교육 및 의료 환경이 열악해 해외 근무 주재원들과 가족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요.



베트남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직원들과 지역사회와는 어떻게 교류하고 계시나요?

팬코пам탕의 투자초기에 광남성 정부(노동국)의 소수민족 지역 연계, 인력공급 및 교육, 팬코пам탕의 기계 및 기술 지원과 현장실습 등을 통한 정부/지역/회사의 3자 협력관계는 근로자와 기업, 지역사회에 모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광남성 방송국에서조차 2020년 구정 특집으로 대담방송을 한적도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협력관계가 멈추었지만 다시 재개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팬코пам탕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지역사회 미래의 주인공들인 초, 중, 고, 대학생 400여명에게 매년 пам키시 장학회와 협력하여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357명의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였고, 또한 코로나, 수해, 태풍 등 자연재해에도 지역사회와 항상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팬코 창업자인 최영주 회장의 뜻과 함께 코로나 백신 기금으로 베트남 중앙 정부에 \$1,000,000을 기부하여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베트남에서 올해 목표는 어떻게 되시나요?

지난해 말인 12월 28일 베트남 Nguyen Xuan Phuc 국가주석께서 당사를 방문해 주셔서 매우 영광되고 또한 격려가 되어 2022년을 힘차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2022년은 전 세계 많은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저희 또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팬코는 창업자(회장 최영주)의 “경천애인(敬天愛人)” 정신을 이어받아 오경석 대표이사의 ‘고객에게 유일무이한 가치를 제공하는 글로벌 일류 의류기업’의 VISION을 가지고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5대 혁신과제를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혁신(효율성 제고), 품질 혁신(지속 가능성), 생산성 혁신(채산성), 환경혁신(3D 5S실천), CSR의 체계화(사회적 책임)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내 소통 활성화, 교육 등 다방면으로 직원들과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빠른 변화에 맞는 신속한 의사결정 시스템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땀탕공단에는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것 같습니다. 땀탕공단 한국진출기업 협의회 회장 기업으로서 공단과 어떠한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땀탕공단은 2004년 3월 23일 국무총리령으로 승인된 북추라이 공업단지(North Chu Lai Industrial Zone) 내 5개의 추라이 경제개방특구(Chu Lai Open Economic Zone) 공단 중 한 곳으로 ‘섬유산업, 공업용 섬유, 전기/전자장비 및 부품, 기계 제조 등 하이테크 산업’ 관련하여 1차 승인된 197.1ha 부지와 2022년 최종 추가승인된 250ha 부지에 여러 한국투자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섬유제조회사로는 저희 팬코땀탕을 비롯해 덕산VINA, 문창VINA, 대한니트(DH), JJ통상 등이 있고 또한 영진산업(염조제), RIO INDUSTRIES(재봉사), 두지(E-Band/String) 등 섬유관련 제조회사와 일송 프린트, 선진 프린트, 신정 자수, 예진 자수 등 프린트/자수 회사, 그리고 타이어코드 및 AIR BAG 소재 아이템의 대표 기업인 효성 QUANGNAM, 자동차 조향장치의 대표적인 기업 CTR VINA, 건축용 비닐/Polybag/박막필름을 제조하는 OCC VINA, 마스크팩용 부직포 제조 기업인 CELLBIO, 지관제조 기업인 DR VINA, 공단 및 부동산 개발 회사인 팬코 E&D 등 한국투자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기업들에게 전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전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미중간의 갈등,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등 온통 불확실성으로 미래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무어라 말한다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더 빨라지는 시대에 새로운 기회를 찾는 노력은 어느 기업에게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먼저 베트남에 투자진출한 한국기업들의 다양한 상황들을 연구하여 배우고, 또한 베트남에 주재하는 한국투자 기업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KOTRA 등의 공공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다면 입지 선정, 투자 결정, 투자절차 진행 등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끝>



베트남 노동조합

법무법인JP 베트남사무소 지사장, 한국변호사 전현우

bhsjun@jplawvn.com | (84-4) 3724 5201~3

1. 들어가며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로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한국과 다른 노동법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시작이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서 시작된 측면도 있다보니 베트남 노동법은 여러모로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라는 측면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베트남 근로자들과 노동법 그리고 노동조합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베트남 노동조합

베트남에 투자를 하시고 기업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베트남 근로자들과의 관계는 때로는 자유로운 소통을 하면서도 때로는 상호간의 의견 충돌이 발생하는 관계라고 생각됩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회사 내에서 서로를 대리님 과장님과 같은 직책, 직위로 부르기 보다는 서로 언니 오빠로 칭하며 사적으로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낼 때도 있으며 때로는 경직된 상하관계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베트남 근로자들은 순박하지만서도 때로는 서로간에 매우 끈끈한 관계로 엮여있어 근로자 1인에 대한 이슈가 전직원으로 번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단체행동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기업 내 노동조합은 매우 민감한 이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베트남의 노동조합 설립은 의무가 아닙니다.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보유한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의무로 갖추어야 하는 것과는 달리 베트남은 노동조합설립을 의무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강조하는 베트남에서 베트남에서의 노동조합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먼저 노동법상 징계절차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법 제122조 1항을 살펴보면, 노동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조치 절차에 대해 징계조치를 받을 근로자가 구성원인 근로자 대표단체가 징계절차 과정에 참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이 의무가 아닌데, 즉 회사 내에 근로자 대표단체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 대표단체가 징계절차 과정에 참석해야 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베트남 노동조합법을 살펴보면 노동조합은 베트남 사회의 근간으로서 매우 강력한 기준 단위로 작용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시, 성급을 포함한 세부 단체로 조직됩니다. 즉, 베트남에서 회사 내 노동조합 설립이 강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미 노동자 모두가 단체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즉, 회사 내에 노동조합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내 근로자들은 지역 노동조합 구성원으로 자동 가입되며 보호를 받습니다.

노동조합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은 사회보험료에 근거하여 급여의 2%를 노동조합비로 납부 해야하며, 근로자들은 1%를 노동조합비로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실무상 위 노조비를 청구하는 과정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납부를 하는 회사도 있고, 납부를 하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만, 원칙상 모든 기업 및 근로자는 노동조합비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실무상 노동조합의 역할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회사내 노동조합은 설립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존재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회사 내에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경우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회사 내에서 사적으로 끈끈한 베트남 근로자들의 성향상 단체행동에 돌입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존속 여부와 관계없이 단체행동을 시행하고는 합니다.

특히 한국 기업이 진출한 베트남 주요 지역의 경우, 숙련공을 채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 베트남 근로자들은 해고에 대한 두려움이 크지 않아 단체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저항감이 크지 않습니다. 물론 이는 베트남 근로자들이 단체행동을 하는 성향이 있다는 의미가 아닌, 노동조합이 단체행동을 더욱 부채질하는 그런 역할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노사간 갈등이 크지 않은 기업에서 노동조합이슈가 대두되는 가장 많은 경우는 태도가 불량한 직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발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트남 노동법은 징계절차 시 근로자 대표단체의 참석을 필수사항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회사 내에 노동조합이 없다면 지역 근로자대표단체가 참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안의 내용과 관계 없이 노동자 보호라는 취지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사내 노동조합의 경우 충분히 이해 될 수 있는 징계조치도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4. 마치며

여러해 기업자문을 통해 경험한 베트남 노동단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건으로는 베트남 내에서 노동조합 설립은 회사 경영과 크게 배치되지는 아니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근로자들은 상위 노동단체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노조비 사용을 회사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많이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및 관련규정상 회사는 2%, 근로자는 1% 노조비를 납부해야 하는데, 회사 내에 노조가 설립되어 있다면 납부금의 65%는 회사내 노조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노사 분규가 발생하는 경우, 베트남 근로자들의 성향상 노조 존속 여부와 무관하게 단체행동을 개시하기 때문에 노조가 단체행동을 더욱 강화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내 노동조합 설립은 여러모로 민감한 이슈이기에 노조를 설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끝>



차명으로 사업하기(3) – 차명 부동산 관련 사례

로투비 Law2B | 대표 김유호 | 베트남 법무부 등록 미국변호사 | 파산관재인 | 중재인
ceo@law2b.kr | +84(0)90 438 7074

지난 두 번의 칼럼을 통해 법인 설립과 운영 시 명의 차용자가 낭패를 본 사례와 반대로 명의 대여자가 이로 인해 어려움으로 겪은 사례, 그리고 관련 법령도 살펴보았습니다. 베트남에서의 부동산 투자도 차명 거래가 적지 않은데, 부동산 거래 시 위험을 줄이고 성공적인 베트남 부동산 투자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칼럼에서는 부동산 차명 거래 시 낭패를 본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법령도 정리하였습니다.

● 명의신탁자(실 소유자인 한국인) 사망

40대를 베트남 주재원 생활을 하며 보내고 착실하게 저축했던 홍길동 씨는 50세 때 베트남 계좌에 있는 돈으로 베트남에서 법인을 설립해 10년간 사업을 했다. 아이의 학교 문제로, 홍 씨 가족들은 한국에서 거주하였고, 홍 씨는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며 그렇게 20년 동안 베트남에서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홍 씨는 심장마비로 베트남에서 갑자기 사망하였다. 홍 씨는 베트남에서 아파트를 베트남인 리엔 씨의 명의로 구매하여 리엔 씨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명의수탁자인 리엔 씨는 이에 대해 함구하였고, 한국의 상속인들은 홍 씨의 베트남 차명 부동산 존재 자체를 몰라 재산권을 상실하였다.

● 명의수탁자(형식적 소유자인 베트남인) 사망

이몽룡 씨는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면서 만난 베트남인 여자친구 지양 씨와 데이트를 하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큰 욕심 없이 나중에 결혼해서 집도 사고, 작은 가게를 내서 알콩달콩 살고 싶다는 지양 씨의 말에 감동한 이 씨는 본인의 사업이 안정되면 정식으로 결혼하자고 약속하고, 전 재산을 털어 지양 씨 명의로 집을 사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지양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발생했다. 장례를 마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함께 살았던 집에 혼자 살고 싶지 않고, 사업 자금도 좀 더 필요했던 이 씨는 지양 씨 명의로 집을 팔아 자금으로 쓰려고 지양 씨의 부모님께 연락하였다. 그런데 지양 씨 명의로의 집은 이미 지양 씨의 상속인들에게 넘어간 상태였다.

● 아파트를 여러 채 소유하고 임대업

강남의 유명한 복부인(福夫人)인 홍길순 씨는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사람이었다. 홍 씨는 차를 타고 가다가도, 사두면 5년 뒤 3배, 10년 뒤 10배가 될 곳이 딱 보인다고 할 정도로, 본인 스스로도, 그리고 주변인들도 인정하는 부동산 투자의 달인이었다. 해외 부동산에도 눈을 돌려 투자처를 찾던 중, 외국인도 베트남에서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10채의 아파트를 구매하였다. 이미 한국에서도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홍 씨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피하고자, 10채의 아파트를 부동산 중개인이 소개해준 10명의 베트남인 명의로 구매했다.



일부 아파트는 국방과 안보상의 이유로 외국인들이 구매할 수 없는 곳도 있었지만, 어차피 베트남인 명의로 구매하는 것이라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게다가 부동산 중개인이 알아서 임차인을 찾아 임대해 주고 임대료도 또박또박 들어와 더할 나위 없이 편했다. 그러던 중, 건물생심이라고, 몇 명의 베트남인 명의수탁자들이 욕심을 내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분쟁을 하게 되면 실 소유자가 흥 씨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불법행위로 조사를 받을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 외국인 구매 제한

베트남에서 주재원 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귀임한 김삿갓 씨는 비슷한 시기에 함께 베트남 주재원 생활을 하다 귀국한 사람들과 베트남에 대한 추억을 나누고 싶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친목 모임까지 만들어 정기적으로 만났다. 김 씨를 포함한 몇 명은 노후에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며 살기 위해 베트남에 괜찮은 아파트 하나쯤은 마련해 두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 일치를 보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로 했다.

한국에서 베트남 아파트를 분양하는 분양사를 방문하니 사람들로 미어터질 듯한 분양 현장 사진을 보여주면서 분양 완료 직전이며 빨리 구매 결정을 하라고 재촉하는 곳도 있었고, 같은 물건을 판매하는 다른 분양사에서는 아직 물건이 많이 남아 있으니 천천히 결정해도 된다고 해서 헛갈렸지만 각기 다른 마케팅 방법으로 이해하고 넘어갔다.

김 씨가 먼저 1채를 계약하자, 나중에 모여서 재미있게 살자며, 모임에서 특히 마음이 맞았던 김 씨의 친한 지인들도 같은 아파트 동에서 각 1채씩 계약하였다. 이후,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며 행복한 노후 생활을 꿈꾸던 김 씨와 지인들에게 누군가 그 아파트 동을 구매한 외국인이 너무 많아 일부는 계약 무효가 되었다고 했다. 놀라서 알아보니, 여러 부동산 중개인들이 같은 물건을 판매하였는데, 중개인들 간 서로 모르고, 매매 정보의 공유도 안 되다 보니, 같은 아파트 동의 30%가 넘는 물건이 외국인에게 판매되었다고 했다. 중개인들도 누가 먼저 계약했고, 누가 나중에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환불 절차를 지연하다 보면 지친 한국인들이 베트남 사람에게 판매해서 자연스럽게 30% 아래로 내려가기를 바라면서 고의로 처리를 지연하고 심지어 연락도 잘 안되는 상황에 김 씨와 지인들은 화도 나고 황당하기도 하였다.

※ 본 칼럼 사례의 모든 이름은 가명입니다.

베트남 투자 ·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

- 베트남의 토지는 국가 소유이고 개인과 법인에 토지사용권만이 부여된다. 그러나 토지 위의 자산(예: 건물, 아파트, 주택, 나무 등)은 소유할 수 있다.
- 상업 주택건설 지역에 위치하지 않은 집(예: 일반 주거단지에 있는 아파트, 시골 마을에 있는 단독주택)과 군사지역 등 특수지역에 있는 집은 외국인이 구입할 수 없다. 즉, 외국인은 주택건설사업에 의해 건설된 집의 구입만 허용된다. 지방 건설국의 웹 사이트에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주택건설사업 명단을 공고한다.



- 외국인에게 구입이 허용된 집의 수를 초과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소유권 증서 발행도 안 된다. 이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외국인에게 구매가 허용되는 아파트 수는 아파트 한 동의 총 30% 이내임.
 - 구 단위와 같은 수준의 인구수를 가진 지역에서 다수의 아파트 건물을 외국인이 구매하는 경우, 각 아파트당 30% 이내 그리고 총 아파트 건물의 30% 이내만 구입이 허용됨.
 - 2천 5백 개 이하의 단독주택 프로젝트가 한 개만 있는 경우, 외국인은 그 프로젝트의 전체 개인 주택 중 10% 이하만 구입이 허용됨.
 - 2천 5백 개의 단독주택 프로젝트가 한 개만 있는 경우, 외국인은 250개 이하만 구입이 허용됨.
 - 2천 5백 개 이하의 단독주택 프로젝트가 2개 이상 있는 경우, 외국인은 각 프로젝트당 10% 이하의 주택만 구입이 허용됨.
- 외국인 개인은 소유한 집을 제삼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단, 사전에 군·현 급 주택관리기관에 신고하고 임대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 외국 투자법인은 소유한 집을 제삼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금지되고, 직원 숙소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 외국인은 영리 목적의 재판매를 위해 집을 구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것은 부동산사업 허가 없이 영위하는 부동산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주택의 영구 소유가 가능한 베트남인과 달리 외국인 개인의 집 소유권 기간은 최대 50년이고, 외국 투자법인은 법인 존속기간까지 라는 제한이 있다. 즉, 법인 명의의 부동산은 법인이 없어지면 그 부동산도 함께 없어지는 것이지, 그 법인의 투자자가 그 부동산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다.
- 외국인 집 소유자는 소유 기간 만료 전에 연장, 매각 또는 증여를 할 수 있다. 연장, 매각 또는 증여 없이 집 소유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소유 기간이 만료된 집은 베트남 정부의 소유가 된다.
- 외국인이 소유한 집의 구매자가 베트남인이면 구매한 베트남인의 집 소유 기간은 영구적이다. 그러나 구매자가 외국인이라면 외국인 판매자의 나머지 소유 기간만 외국인 구매자의 집 소유 기간이 된다.

※ 본 칼럼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외국인 개인과 외국 투자법인을 통칭해 '외국인'으로 하고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통칭해 '집'으로 부릅니다. <끝>



베트남 통관 HOT 뉴스

FTA활용지원센터 박민설 관세사

< 한국산 원단으로 제작된 완제품의 EVFTA 적용 >

Q : EVFTA의 한국산 원단 누적기준을 활용하여 EU 국가로 수출을 하고자 합니다. 실무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 : 한국산 원단을 수입하여 베트남에서 완제품을 생산할 경우, EU 국가로 수출 시 한국산 원단에 대한 누적기준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적인 부분 및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1) 근거 규정

EVFTA Protocol 1 (원산지 의정서) 제 3조 Cumulation of Origin (누적기준) 제 7항

“7. Fabrics originating in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considered as originating in Viet Nam when further processed or incorporated into one of the products listed in Annex V to this Protocol obtained in Viet Nam, provided that they have undergone working or processing in Viet Nam which goes beyond the operations referred to in Article 6 (In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

“7. 한국을 원산지로 하는 원단은 베트남에서 추가 가공을 거쳐 해당 의정서의 부록 5에 나열된 완제품으로 제작 시 베트남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다만 해당 원단은 제 6조(불충분한 작업 및 가공)에서 정하는 것 이상의 작업을 거쳐야 한다.” * 이 때, 부록 5의 물품은 제61류와 제 62류의 물품을 의미합니다.

2) 원단의 원산지 결정 기준과 원산지 증명 절차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원단은 먼저, 한-EU FTA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단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대부분 가공공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제품에 따라 단사로부터의 생산, 섬유로부터의 생산 등 원산지 결정기준의 차이가 있기에 원단의 Hs code에 따른 정확한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이 필수입니다.

해당 원단을 수출할 때에는 한-EU 협정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맞는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한-EU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문언을 기재하여 작성되며, 물품의 단일 선적건 당 6,000 EUR 을 초과하는 수출건에 대해서는 원산지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 증명서 작성이 가능한 부분에 유의해야 합니다. 원단 수출 시 베트남으로의 수출 과정에서 직접 운송 원칙 충족 여부 또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3) 완제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과 원산지 증명 절차

베트남으로 수출된 원단은 완제품 제작 과정에서 의정서 제 6조의 불충분한 작업 및 가공 이상의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불충분한 작업 및 가공에 대해 단순한 보존을 위한 가공, 세척, 직물 다림질 등의 공정을 나열하고 있기에 제조공정도 등을 통해 충분한 가공이 이뤄졌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제조된 완제품에 대해서는 EVFTA 규정과 합치하는 원산지증명서 발행을 통해 EU 국가에서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베트남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수입자에게 전달되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4) 유의 사항

EVFTA 원산지 증명서는 6,000 EUR 초과 여부에 따라 자율 발급 여부가 상이합니다. 완제품의 가액이 6,000 EUR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베트남 원산지증명서 발급 포털(ECOSYS)를 통해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EUR.1 Form, 기관 발급 원산지 증명서발행이 필요하며, 해당 증명서 발행 시 한국산 원단에 대한 누적기준이 적용되었음('Application of Article 3(7) of Protocol 1 to the Vietnam-EU FTA')을 아래 체크 박스 표시를 통해 원산지 증명서 상에 기입하여야 합니다.

Port of Loading: Select...
 Port of Discharge: Form Dr ASW không chấp nhận chọn cảng Others
 Transportation document attached: [Field]
 Departure date: 05/03/2021

Goods
 Add/Update Item

Item number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Numbers and type of package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number of the importing country)	Origin criterion (see Overleaf Notes)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 (FOB) where RVC is applied	Number and date of invoices
Không có file nào.					
Total value	UNKNOWN	<input type="checkbox"/> Show value on C/O	Document proving the origin status attached	Choose files	
Total Quantity:	UNKNOWN		Invoice attached	Choose files	
Total Gross Weight:	UNKNOWN				
Declaration place:	Binh Duong				
Remarks:	[Text Area]				
<input type="checkbox"/> ISSUED RETROSPECTIVELY	LÝ DO XIN C/O SAU (NHẬP BẢNG TIẾNG VIỆT), KHÔNG PHẢI IN LÊN C/O				
<input type="checkbox"/> DUPLICATE					
<input type="checkbox"/> OTHERS					
<input type="checkbox"/> Application of Article 3(7) of Protocol 1 to the Viet Nam - EU FTA					



<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자율 인쇄 원산지 증명서 용지 사용 허용 >

Q :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원산지 증명서 발행 절차를 알려 주세요

A : 기존의 베트남 기관 발급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 세관에서 판매하는 원산지 증명서 빈 양식을 구매하여 ECOSYS에서 작성 및 확인 받은 내용을 인쇄한 후, 세관 확인을 받는 방식으로 발급이 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15일자로 257/TB-BCT에 따라, 기존에 구매해서 사용하던 원산지 증명서 양식을 기업에서 직접 A4 용지에 인쇄하여 활용 가능하게끔 하였으며, 활용 가능 협정은 총 14개로 한-아세안 FTA 및 한-베트남 FTA, RCEP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D, E, AK, AJ, AI, AANZ, AHK, RCEP, CPTPP, VK, VJ, VN-CU, S, VC)

기존에 산업 무역부에서 구매한 원산지 증명서 빈 양식의 경우 2023년 4월 15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산지 증명서 양식 발행이 자율일 뿐, 기존과 같이 ECOSYS를 활용하는 부분 및 세관 확인 절차 등은 그대로 지속하여야 하는 부분 업무에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 베트남 과학기술부 강제 인증 대상 품목 >

Q : 베트남으로 오토바이 헬멧을 수출하고자 합니다. 어떤 수입 인증 해당 사항이 있나요?

A : 오토바이 헬멧의 경우 베트남 수입 시 강제 인증 대상(Group 2)에 해당합니다. 베트남은 각 부처별로 시행규칙으로써 품질 검사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오토바이 헬멧은 과학기술부(Bộ khoa học và công nghệ)에서 규정하는 “과학기술부가 관리하는 Group 2에 속하는 품목”으로써 QCVN2:2008/BKHCN대상에 해당합니다.

베트남 정보통신부에서 규정하는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시행규칙 3810/QD-BKHCN 및 3115/QD-BKHCN을 통해 아래와 같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대분류	품목 예시
1	가솔린, 디젤오일, 바이오연료	무연 가솔린, 디젤 오일, 변성 에탄올 등
2	LPG	프로판, 부탄, 기타
3	오토바이 및 모터 달린 자전거용 헬멧	
4	아동용 완구	삼륜 자전거, 인형, 장난감용 전기기차, 퍼즐 등
5	전기전자제품	온수기, 250V 이하의 가정용 전열기, 선풍기, 커피메이커 등
6	전자파적합성 기기	즉시가열기, 진공청소기, 냉장고, 세탁기 등
7	콘크리트 공사용 철근	철강으로 만든 연선, 케이블 등
8	철강제품	철강 반제품, 철강 압연제품
9	엔진유탄제	
10	LED 제품	LED 발광 램프, 책상 및 탁상용 LED 발광 제품 등
11	스텐레스 스틸 제품	스텐레스 스틸 압연제품, 스테인레스 스틸 막대와 형재 등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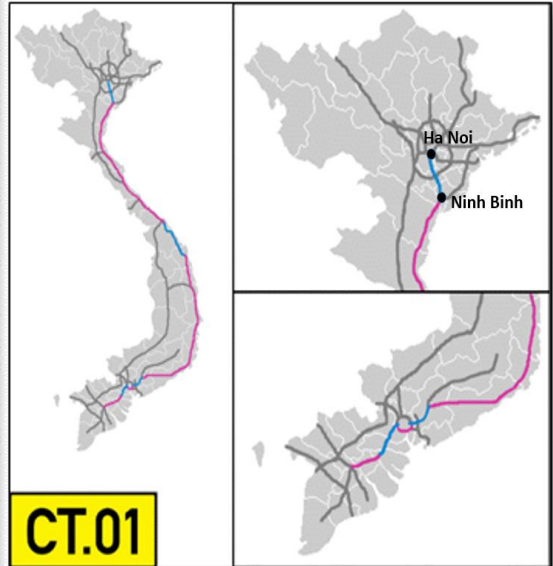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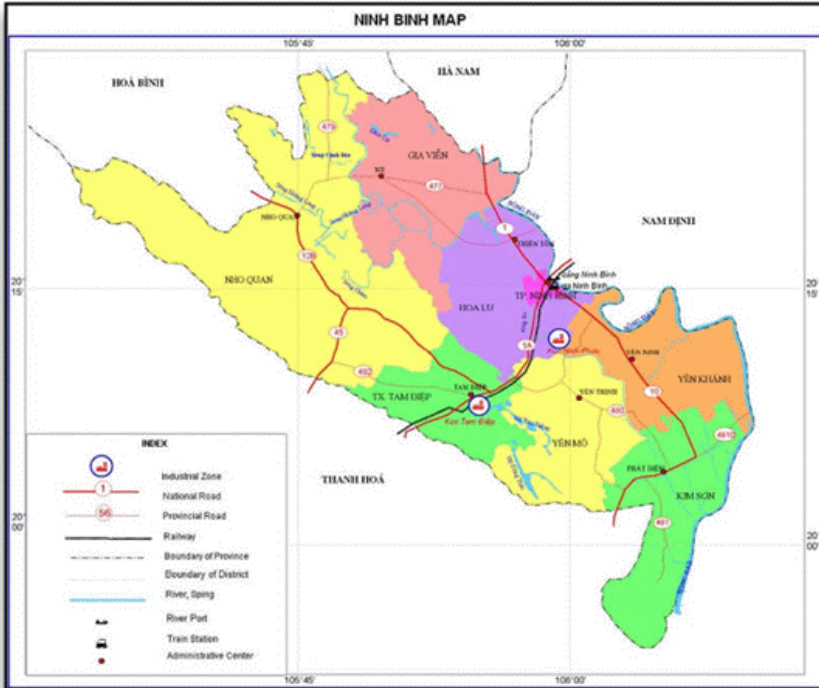
베트남 북부 유망 투자지 - 닌빈성

□ 닌빈(Nhin Binh)성 기본정보

구분	내용
면적-인구('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 1,386km² • 도시거주 비율 : 21.49% ▪ 인구 : 1,007,600명
지정학적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쪽으로는 하남(Ha Nam)성, 북동쪽 및 동쪽으로는 남딩(Nam Dinh)성, 북서쪽으로는 호아빈(Hoa Binh)성, 남쪽으로는 타잉화(Thanh Hoa)성 및 베트남 동해와 인접해 있음 • 하노이시에서 95km, 다낭시에서 670km, 호치민시에서 1,626km 떨어져 있음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길이 50km의 하노이-닌빈 고속도로 • 닌빈-타잉화(Thanh Hoa) 고속도로 • 타잉화(Thanh Hoa)성, 남딘(Nam Dinh)성, 타이빈(Thai Binh)성, 하이퐁(Hai Phong)시, 꽝닌(Quang Ninh)성과 연결되는 1번, 10번 도로 보유
GRDP 성장률 / 1인당 GDP('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대비 GDP 성장률: 5.71% ▪ 성 1인당 GDP: US3,100 달러/년
경제규모 / 산업별 성장률('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수출액: US 29.6억 달러 / 총 수입액: US 31.9억 달러 ▪ 산업별 성장률: 공업/건설업(5.64%), 서비스업(4.19%), 농수산업(2.77%)
산업구조('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건설업: 47.21%, 서비스업: 41.31%, 농수산업: 11.48%
노무여건('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연령 인구 비율: 48.4% ▪ 도시지역 노동인구: 20.6% ▪ 농촌지역 노동인구: 79.4%
최저임금('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닌빈시: VND4,160,000= US180 달러(2급지) ▪ 자비엔(Gia Vien), 옌카잉(Yen Khanh), 화르(Hoa Lu)현: VND3,640,000= US158 달러(3급지) ▪ 타 지역: VND3,250,000= US141 달러(4급지)
외국인투자 ('21.12월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닌빈성 내 총 외국인투자는 89개 프로젝트에 걸쳐 총 15.6억 달러 규모 ▪ (한국) 42개 프로젝트에 걸쳐 총 3.69억 달러를 투자하여, 닌빈성에 투자한 12개 국가들 중 투자건수 기준으로 1위, 투자액 기준으로 2위(대만 1위) 규모



□ 투자환경



닌빈성의 지도(좌), 하노이-닌빈 고속도로 지도(우)

○ 교통시스템

- 도로

- 하노이-닌빈 고속도로(전체 노선의 기호: CT.01): 총 길이 50km
- 닌빈-타잉화(Thanh Hoa) 고속도로
- 1번, 10번 국도, 해안 도로(11.93km): 닌빈성을 타잉화(Thanh Hoa)성, 남딘(Nam Dinh)성, 타이빈(Thai Binh)성, 하이퐁(Hai Phong)성, 광닌(Quang Ninh)성과 연결함

- 항만: 항구가 없으나 3,000톤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내륙 수로 항구 및 내륙물류기지(ICD)가 있음

- 항공: 공항이 없으나 하노이시 노이바이(Noi Bai) 공항, 하이퐁(Hai Phong)시 깃비(Cat Bi) 공항, 타잉화(Thanh Hoa)성 터쑤안(Tho Xuan) 공항까지는 각각 약 1시간 30분 소요됨

- 관광

닌빈성에는 언덕, 강, 호수, 평원, 바다 등 다양한 지형이 있으며 풍부하고 독특한 자연 경관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역사·문화적 유물이 있어 경쟁력 있는 관광 상품 및 닌빈성의 고유한 관광 브랜드를 만드는 기초 역할을 함



짱안(Trang An) 생태관광지역



바이딩(Bai Dinh) 파고다 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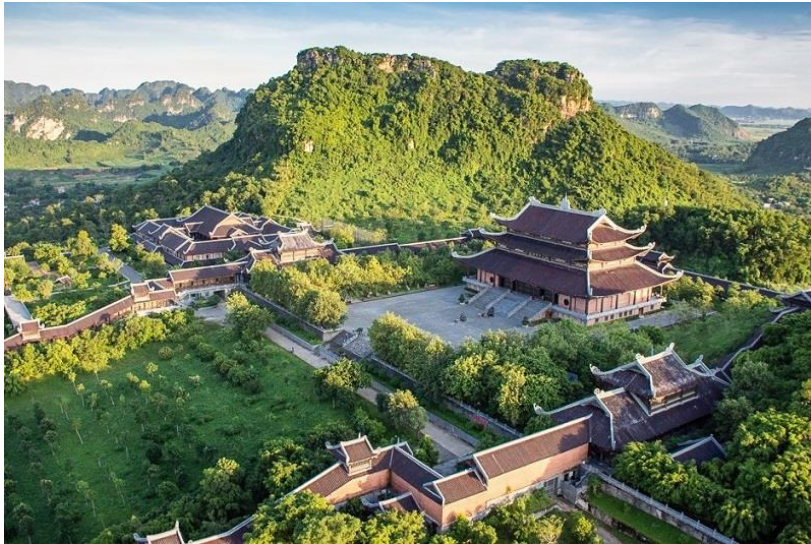
반롱(Van Long) 습지 자연 보호구역

- 팜꼭(Tam Coc)-빅동(Bich Dong)-짱안(Trang An)-화르(Hoa Lu) 고대 수도 관광지역: 매우 풍부하고 독특한 동굴 및 역사적-문화적 유물의 복합체이며, 특히 짱안 생태관광지역은 유네스코로부터 세계 문화 유산으로 인정받았음
- 바이딩(Bai Dinh) 파고다 관광 단지: 동남아시아 최대의 파고다라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수백만 명의 국내외 방문객을 맞이함
- 반롱(Van Long) 습지 자연 보호구역: 총 3,710h 규모로 희귀한 습지의 특징을 갖고 있음. 특히 과학적 연구 가치가 있는 품종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종(식물 547종, 동물 39종)이 서식하고 있음
- 국프엉(Cuc Phuong) 국립 공원: 총 11,350ha에 베트남의 희귀 열대 원시림이며, 희귀종 및 고유종을 포함한 품종의 다양성(동식물 1,944종)을 보유함
- 께잉가(Kenh Ga)[자비엔(Gia Vien)현] 지역 및 반짱(Van Trinh) 동굴[녀판(Nho Quan)현]: 께잉가 샘물(섭씨 53도, 미네랄 함유)은 여러 질병을 치료할 수 있어 베트남 북부에서 유명하며, 휴가 관광 상품 개발에 유리함. 반짱 동굴은 다른 동굴과 함께 관광객에게 독특한 매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됨
- 꾀노이(Con Noi) 생물권 보전지역[김선(Kim Son)현의 연해지역]: 유네스코가 세계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인정하였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8대 생물다양성 보전 지역 중 하나임. 맹그로브 숲, 해안 충적 지역 및 하구를 포함하여 풍부한 생물다양성 가치를 보존하고 있음.



○ 문화 자원

닌빈성에는 1,821개의 역사 및 문화 유적이 있으며 그 중 370개는 순위가 지정되어 있음: 81개 국립 유적지(3개 특별 국립 유적지 포함)와 289개 성급 유적지가 있음. 중요한 역사·문화적 유적지 몇 곳은 특별 국립 유적지인 화르(Hoa Lu) 고대 수도, 타이비(Thai Vi) 사원, 탄잉응우옌(Thanh Nguyen)사원, 딩띠엔황(Dinh Tien Hoang)왕 사원임.



특별 국립 유적지인 화르(Hoa Lu) 고대 수도

그 외에 닌빈성의 특산물은 염소고기, 누룽지, 월남쌈, 김선(Kim Son) 술, 자비옌(Gia Vien) 곤쟁이젓, 녀판(Nho Quan) 술(단지에 담긴 술을 나무 빨대로 빨아서 먹는 술) 등임.

○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산업 개발 동력

닌빈성에는 정부가 승인한 7개의 산업단지가 있으며 총 면적은 1,472ha임.

- 5개는 완공 후 운영 중: 팜디엵(Tam Diep) I 공단, 카잉푸(Khanh Phu) 공단, 잔카우(Gian Khau) 공단, 카잉끄(Khanh Cu) 공단, 푸선(Phuc Son) 공단
- 2개는 개발 중: 팜디엵(Tam Diep) II 공단(구획 승인 완료 및 현재 인프라 투자자 모색 중), 김선(Kim Son) 공단(계획 설립 중)

현재 산업단지 내 모든 사업은 투자등록증 발급을 받았고 유효한 프로젝트의 수는 119개(인프라 투자사업 2개, 2차 사업 117개)가 있음. 그 중 29개는 FDI사업이며, 695.8ha중 임대된 공업용 면적은 672.2ha로 전체 중 96.6%를 차지함.



○ 인센티브 지원 정책

- 법인 소득세 및 토지세: 현행법에 따라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음

* 법적 근거 :

- 법인 소득세법 시행지침에 대한 제218/2013/ND-CP 의결서(2013.12.26)
- 투자법 시행지침에 대한 제31/2021/ND-CP(2021.03.26.) (투자우대 분야/지역 목록 포함)
- 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에 대한 제46/2014/ND-CP 의결서(2014.05.15)

투자지역	법인세	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
투자우대지역 /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 모든 공단/산업 클러스터 • 녀판(Nho Quan)현, 자비엔(Gia Vien)현, 옌모(Yen Mo)현, 김선(Kim Son)현, 탐디엵(Tam Diep)시	• 첫 10년간 세율 17% (2016년 1월 1일부터 유효) • 최초 2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4년간 50% 감면(기업이 수익을 얻은 첫해부터 적용)	기본 건설 기간 동안 면제(최대 3년간), 이후: • 특별 투자우대 분야 목록에 있는 프로젝트: 15년간 계속 면제 • 투자우대 분야 목록에 있는 프로젝트: 11년간 계속 면제 • 투자우대 분야 목록에 없는 프로젝트: 7년간 계속 면제

- 수입세: 수출입세법 시행지침에 대한 제134/2016/ND-CP 의결서(2016.09.01)에 따르면 생산 및 비즈니스 활동 분야에 따라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 고정자산 형성을 위해 수입된 화물, 설비 및 기계에 대한 면세 등
- 국내에서 생산 불가능한 원자재, 소모품, 부품에 대하여 5년간 면세 등

□ 외국인 투자현황

○ 외국인 투자

2021년 12월말까지 난빈성 내 총 외국인투자는 89개의 프로젝트에 걸쳐 15.06억 달러가 투자등록되어있음

○ 한국계 투자

2021년 12월말까지 한국투자는 42개의 프로젝트에 걸쳐, 3.69억 달러가 등록되어 있으며, 난빈성에 투자한 12개의 국가 중 투자건수 기준으로 1위, 투자액 기준으로 대만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닌빈성 내 10대 FDI 프로젝트**

순번	프로젝트명	내용	투자국	투자금액 (US 달러)
1	Heduong Cement Joint Stock Company	시멘트 플랜트를 3.6백만톤/년의 용량으로 업그레이드	대만	360,000,000
2	Mcnex Vina Co., Ltd	모듈식 카메라 및 전자 부품 제조공장	한국	89,000,000
3	Sevulle Development Limited	가죽 공장	영국령 버진 제도	52,500,000
4	Montop Holdings Limited	Vienergy 신발 생산 및 가공 공장	대만	52,000,000
5	C.P. Vietnam Corporation	닌빈 동물 사료 공장	태국	48,400,000
6	Ever Great International Limited	가죽 신발 연구 및 개발 센터와 결합된 제조 공장	대만	42,650,000
7	ADM21 Vietnam Co., Ltd	닌빈 자동차 장비 제조 및 조립 공장	한국	37,000,000
8	Kyoei Steel Vietnam Co., Ltd	고품질 철강 압연 공장	일본	33,600,000
9	Regis Co., Ltd	Regis 신발 공장	대만	30,000,000
10	Nien Hsing Garments Ninh Binh Vietnam Co., Ltd	Nien Hsing 수출용 의류 공장	대만	29,823,682

○ **닌빈성 내 10대 한국 프로젝트**

순번	프로젝트명	내용	분야	투자금액 (US 달러)
1	Mcnex Vina Co., Ltd	모듈식 카메라 및 전자 부품 제조공장	전자 부품	89,000,000
2	ADM21 Vietnam Co., Ltd	자동차 장비 제조 및 조립 공장	자동차 부품	37,000,000
3	ESMO Vina Co., Ltd	자동전선공장	자동차 부품	26,307,548
4	Sejung Vietnam Co., Ltd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	자동차 부품	19,796,000
5	Vietnam JT Tube Co., Ltd	철관 생산 공장	철관	17,536,600
6	Hado Vietnam Co., Ltd	니들펀치 부직포 공장	섬유	15,182,000
7	DNC Automotive Co., Ltd	자동차 부품 공장	자동차 부품	12,000,000
8	Daewon Auto Vina Co., Ltd	Daewon Auto Vina Gia Lap 공장	자동차 부품	12,000,000
9	DMGV Co., Ltd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	자동차 부품	10,285,000
10	MS Electronics Vietnam Co., Ltd	전자 부품 공장	전자 부품	10,000,000



□ 공단 현황

○ 주요 공단 정보

순번	공단명	설립년도	면적 (ha)	주요 정보
1	푼선(Phuc Son)	2011	12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닌빈시 닌푼(Ninh Phuc) 마을 • 입주율: 90.9% • FDI 기업 수: 6
2	카잉푸(Khanh Phu)	2004	3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옌카잉(Yen Khanh)현 카잉푸(Khanh Phu) 마을 • 입주율: 89.1% • FDI 기업 수: 11
3	카잉끄(Khanh Cu)	2014	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옌카잉(Yen Khanh)현 카잉끄(Khanh Cu) 마을 • 입주율: 100% • FDI 기업 수: 0
4	잔카우(Gian Khau)	2009	2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자비옌(Gia Vien)현 자편(Gia Tran) 마을 • 입주율: 100% • FDI 기업 수: 6
5	탐디엵(Tam Diep) I	2008	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디엵(Tam Diep)시 광선(Quang Son) 마을 • 입주율: 100% • FDI 기업 수: 6



닌빈성의 공단 위치 지도



□ 투자 유망분야

닌빈성은 첨단기술, 청정기술, 녹색기술을 활용한 프로젝트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음.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세수 기여, 적은 노동집약도, 토지의 경제적 이용, 높은 투자 효율성, 글로벌 생산 및 공급망 연결에 적합한 프로젝트를 우선시하고 있음

1. 산업 부문: 첨단 기술, 신기술, 청정 기술, 디지털 기술, 스마트 제조, 자동차 제조, 조립 및 지원산업, 농업 생산을 위한 제품 제조, 환경 보호와 관련된 첨단기술 지원산업 제품 제조, 산업단지 및 산업 클러스터의 인프라, 관광명소 및 관광지역 인프라 투자 및 사업 프로젝트 등

2. 농업 부문: 관광을 위한 첨단기술 응용 농업, 녹색, 청정 및 유기농업 프로젝트, 동식물 교배 기술 연구, 응용 및 이전 프로젝트, 양식업의 과학 및 기술 응용, 지속 가능한 관광과 관련하여 유기적인 방향으로 주력제품 및 특산품 개발, 가치 사슬과 관련된 프로젝트[집중된 원료 지역과 관련된 고품질 통합 농장(생산, 가공 및 소비), 디지털 농업 관리(생산, 소비 및 추적) 등]

3. 무역 - 서비스 부문: 현대적인 무역/서비스 센터 개발, 놀이공원 단지/5성급 호텔/관광 지역 및 명소와 연결된 대규모 4-5성급 호텔 및 리조트 복합단지 개발. 특히 관광/상업 인프라 투자, 도매 시장, 농촌 시장 및 야시장 네트워크 개발 및 관리에 대한 투자 유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4. 문화 - 사회 부문:

- 역사 및 문화 유적의 건설 및 보존, 축제, 공예 마을 및 전통 문화 가치를 복원, 자수/도자기와 같은 전통 공예 마을 및 수공예품 프로젝트 등
- 첨단기술, 정보 기술, 디지털 변환 응용 개발, 혁신적인 창업 프로젝트,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고품질의 사립 교육 등
- 물류 프로젝트, 스포츠 훈련 센터/직업 훈련 시설 구축, 사립 병원/고품질 건강 진단 및 치료 시설 구축, 의약품/의료 장비 생산, 생활/의료/산업폐기물 처리사업 등

□ 닌빈성 투자유치기관 정보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이메일
닌빈성 투자기획청	Ms Dinh Thi Thuy Ngan 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l: +84-229-387-1156 • Email: skhdt@ninhbinh.gov.vn • Website: dpi.ninhbinh.gov.vn
닌빈성 투자진흥 및 사업개발지원 센터	Ms Tran Thi Tuyen 센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l: +84-229-389-9213 • Email: pscninhbinh@gmail.com • Website: ninhbinhinvest.vn



對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국가명	1988. 1. 1~2022. 9. 20 기준 누계		2022. 1. 1 ~ 9. 20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한국	9,438	80,518.25	290	749.08	3,818.84
일본	4,931	66,099.86	142	927.53	1,920.08
중국	3,486	22,438.11	182	735.25	1,499.44
싱가포르	3,003	70,158.95	173	1,452.18	4,752.73
대만	2,885	36,042.95	57	371.53	815.37
홍콩	2,122	28,638.86	85	611.36	1,206.70
미국	1,190	11,064.60	58	221.5	448.8
버진아일랜드(영)	887	22,172.26	18	108.73	383.54
말레이시아	690	13,011.54	24	3.09	175.08
태국	670	13,093.01	27	94.18	254.48
네덜란드	405	13,697.96	26	39.34	766.42
기타	6,018	54,628.36	273	1,810.10	2,713.22
합계	35,725	431,564.71	1,355	7,123.87	18,754.70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對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연번	구분 산업	2022. 9. 20 기준 누계		2022. 1. 1 ~ 9. 20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1	제조, 가공	15,823	256,415.73	348	4,871.39	12,123.31
2	부동산경영	1,051	65,509.69	54	1,229.13	3,523.73
3	전력, 가스, 용수 제조 공급	185	36,381.64	10	102.94	279.85
4	호텔, 외식서비스	918	12,674.77	22	3.93	-18.49
5	건설	1,778	10,883.83	20	92.18	222.45
6	도소매, 유지보수	5,959	9,952.65	407	207.25	617.94
7	물류운수	967	6,170.60	45	286.27	409.77
8	채광	109	4,900.37	1	1.98	19.06
9	정보통신	2,636	4,852.02	165	142.53	554.07
10	교육, 양성	610	4,586.94	16	8.96	194.53
11	과학기술, 전문활동	4,013	4,577.19	216	115.79	676.91
12	농, 임, 수산	525	3,849.75	9	24.28	62.62
13	예술 오락	138	3,416.45	-	-	1.52
14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84	2,991.17	3	1.85	14.84
15	의료와 사회복지	153	1,742.90	1	0.01	10.49
16	행정, 지원 서비스	539	1,010.00	31	12.39	32.23
17	금융, 은행, 보험	85	913.84	5	22.68	24.15
18	기타서비스	145	724.12	2	0.3	5.73
19	가구내 고용활동	7	11.07	-	-	-
	합계	35,725	431,564.71	1,355	7,123.87	18,754.70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구분	2019	2020	2021	2022.9(누계)
수 출	2,641.8	2,826.5	3,363.1	2,823.4
수 입	2,530.7	2,627	3,322.3	2,755.8
무역수지	111.1	199.5	40.8	67.6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2019	2020	2021	2022.9(누계)
각종 전화기 및 부품	51,378	51,183	57,537	45,085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	35,925	44,576	50,828	41,845
기계/플랜트 및 부품	18,303	27,193	38,344	34,204
섬유/직물제품	32,850	29,809	32,753	29,014
신발류	18,320	16,791	17,751	18,157
원목 및 목제품	10,647	12,371	14,809	12,275
철강제품	4,210	5,258	11,795	3,594
수송수단 및 부품	8,505	9,090	10,616	8,763
수산물	8,543	8,412	8,886	8,488
원사(Yarn)	4,176	3,736	5,612	3,774
기 타	71,332	74,235	87,379	77,147
합 계	264,189	282,654	336,310	282,346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2019	2020	2021	2022.9(누계)
전자제품 및 컴퓨터	51,353	63,971	75,440	57,236
기계/플랜트 및 부품	36,748	37,251	46,296	34,462
각종 전화기 및 부품	14,615	16,645	21,434	15,788
의류(원단)	13,276	11,875	14,324	11,443
플라스틱 원료	8,991	8,397	11,685	9,812
각종 철강	9,507	8,066	11,523	9,564
기타 비금속	6,385	6,052	8,611	7,253
플라스틱 제품	6,538	7,274	7,959	6,220
화학제품	5,419	5,741	7,627	7,253
화학물질	5,128	5,016	7,735	6,723
기 타	95,110	92,412	119,600	109,829
합 계	253,070	262,700	332,234	275,583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8	2019	2020	2021	2022.9(누계)
1	미국	47,526	61,347	77,077	96,293	85,168
2	중국	41,268	41,414	48,905	56,009	41,222
3	한국	18,205	19,720	19,107	21,945	18,681
4	일본	18,851	20,413	19,284	20,128	17,837
5	홍콩	7,955	7,156	10,437	11,996	8,476
6	네덜란드	7,076	6,881	6,999	7,686	7,817
7	독일	6,869	6,555	6,644	7,286	6,760
8	인도	6,542	6,674	5,235	6,259	6,130
9	태국	5,494	5,272	4,917	6,161	5,556
10	영국	5,776	5,758	4,955	5,765	4,650
	기타	77,921	82,999	79,094	96,782	80,049
	합계	243,483	264,189	282,654	336,310	282,346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8	2019	2020	2021	2022.9(누계)
1	중국	65,438	75,452	84,187	109,874	91,158
2	한국	47,497	46,935	46,895	56,155	48,118
3	대만	13,228	15,173	16,701	20,772	17,922
4	일본	19,011	19,526	20,341	22,648	17,850
5	미국	12,753	14,365	13,713	15,270	11,148
6	태국	12,023	11,656	10,968	12,564	10,529
7	오스트레일리아	3,984	4,456	4,677	7,946	7,773
8	말레이시아	7,450	7,291	6,575	8,148	6,917
9	인도네시아	4,918	5,703	5,382	7,587	7,060
10	인도	4,147	4,538	4,435	6,950	5,299
	기타	46,238	47,975	48,826	64,320	51,809
	합계	236,687	253,070	262,700	332,234	275,583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률%)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9(누계)
수출	48,629(1.8)	48,178(-0.9)	48,510(0.7)	56,729(16.9)	46,615(14.5)
수입	19,632(21.4)	21,071(7.3)	20,579(-2.3)	23,965(16.5)	20,787(17.5)
무역수지	28,997	27,107	27,931	32,763	25,828

자료원: KITA

한국의 對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목명	2018	2019	2020	2021	2022.9(누계)
반도체	10,939(18.5)	10,730(-1.9)	11,501(7.2)	14,026(22)	12,124(21.7)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8,909(20.9)	7,970(-10.5)	9,552(19.9)	12,050(26.1)	9,332(14.8)
석유 제품	1,976(-0.6)	2,196(11.2)	1,196(-45.5)	1,157(-3.2)	2,919(254.6)
합성수지	1,659(15.1)	1,624(-2.1)	1,615(-0.6)	2,415(49.5)	2,122(18.9)
무선통신기기	2,631(-19.9)	2,932(11.4)	3,460(18)	3,315(-4.2)	1,804(-26.9)
기구부품	2,332(-10.7)	2,230(-4.4)	2,241(0.5)	2,405(7.3)	1,712(-2.9)
철강판	1,049(6.5)	1,157(10.4)	1,052(-9.1)	1,267(20.4)	908(-3.6)
자동차부품	474(23.3)	668(40.9)	673(0.8)	924(37.3)	877(28.9)
플라스틱 제품	1,205(4.6)	1,210(0.4)	1,115(-7.8)	1,174(5.3)	833(-4.3)
기타기계류	877(-38.6)	842(-3.9)	686(-18.6)	717(4.5)	646(17.7)
기타	16,571	16,619	15,420	17,279	13,338
합계	48,622	48,178(-0.9)	48,511(0.7)	56,729(16.9)	46,615(14.5)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한국의 對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목명	2018	2019	2020	2021	2022.9(누계)
무선통신기기	4,838(22)	5,691(17.6)	4,980(-12.5)	5,579(12)	4,984(17.5)
의류	3,570(24.2)	3,646(2.1)	3,145(-13.7)	3,393(7.9)	2,898(19.7)
컴퓨터	539(-3.7)	679(25.9)	1,270(87.1)	1,659(30.6)	1,499(14.4)
신변잡화	980(23.1)	1,053(7.4)	1,029(-2.2)	984(-4.4)	931(16.2)
산업용 전기기기	417(31.5)	479(14.8)	574(20)	725(26.2)	705(30.2)
목재류	793(55.1)	657(-17.1)	632(-3.9)	755(19.5)	705(24.6)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137(88.4)	1,197(5.2)	1,027(-14.2)	876(-14.7)	663(7.6)
반도체	396(5.8)	471(19.1)	561(18.9)	750(33.8)	599(21.3)
기구부품	445(-10.4)	512(15.1)	481(-5.9)	624(29.6)	509(14.6)
영상기기	364(-9.1)	356(-2)	406(14)	460(13.2)	360(0.8)
기타	6,164	6,331	6,474	8,161	6,934
합계	19,643(21.4)	21,072(7.3)	20,579(-2.3)	23,966(16.5)	20,787(17.5)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 한/베 통계 집계 기준이 달라, 수치가 다소 차이남



< 2021~2022년 주요 경제지표 >

구분	시기	단위	국 가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GDP증가율	2021년(연간)	%	7.6	5.6	3.1	3.7	2.6	
	2022년 1Q	%	3.7	8.2	5.0	5.0	5.0	
	2022년 2Q	%	4.8	7.4	8.9	5.4	7.3	
생산	산업생산 (증가율 또는 지수)	2021년(연간)	-	121.8	N/A	118.1	N/A	4.8
		2022년 8월	-	123.0	8.3	129.4	N/A	15.6%
		2022년 9월	-	N/A	10.6	N/A	N/A	13.0%
	구매관리자지수 (PMI)	2021년(연간)	-	50.7	N/A	112.1	51.7	N/A
		2022년 8월	-	50.0	51.2	120.9	51.7	52.7
		2022년 9월	-	49.9	52.9	N/A	53.7	52.5
소비	소비자동향지수	2021년(연간)	-	102.1	N/A	90.5	98.4	N/A
		2022년 8월	-	109.9	N/A	N/A	124.7	N/A
		2022년 9월	-	N/A	N/A	N/A	117.2	N/A
	소매판매	2021년(연간)	-	90.7	4.5%	135.5	N/A	3.8%
		2022년 8월	-	97.7	3.5%	166.6	4.9	50.2%
		2022년 9월	-	N/A	N/A	N/A	N/A	36.1%
	소비자물가 (증가율 또는 지수)	2021년(연간)	%	2.3	N/A	2.5	N/A	1.8
		2022년 8월	%	7.5	6.3	4.7	4.7	2.9
		2022년 9월	%	N/A	6.9	4.5	4.3	3.9
투자	고정자산투자	2021년(연간)	%	118	N/A	5.6	3.8	9.2(누계)
		2022년 8월	%	N/A	N/A	N/A	N/A	△12.3(누계)
		2022년 9월	%	N/A	N/A	N/A	N/A	△15.3(누계)
고용	실업률	2021년(연간)	%	2.6	N/A	4.6	N/A	4.0
		2022년 1Q	%	2.2	6.2	4.1	5.8	2.5
		2022년 2Q	%	2.2	5.9	3.9	N/A	2.3
무역	수출증가율	2021년(연간)	%	19.1	N/A	26.0	41.9	19.0
		2022년 8월	%	21.8	△2.0	48.2	30.2	22.1
		2022년 9월	%	20.1	N/A	30.1	20.8	10.3
	수입증가율	2021년(연간)	%	20.4	N/A	23.3	38.6	26.5
		2022년 8월	%	30.9	26.0	67.6	32.8	12.4
		2022년 9월	%	21.4	N/A	33.0	22.0	6.4

* 국가별 여건에 따라 해당 통계수치가 없거나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경우 N/A로 표기, 전망치는 *표시

* 자료원 : (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필리핀) Trading Economics, YoY, Investing.com, IHS Markit, PSA, Moody's Analytics, Unemployment rate
 (말레이시아) Central Bank of Malaysia, Department of Statistics, MATRADE, Malaysi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CEIC, Moody's, Trading economics, 인도네시아 통계청, Global Trade Atlas 등
 (베트남) 베트남 통계청, 월드뱅크



한국-베트남 디지털·스마트시티·투자 포럼

일시: 2022.11.25.(금) 09:00-12:40

장소: 풀만 다낭비치 리조트

프로그램

시간	내용
08:30-09:00	등록
09:00-09:25	개회
09:25-10:55	[1세션] 디지털·ICT 분야 한-베 협력 - 한-베 ICT 분야 협력 경험 공유 - 중부지역 스마트업 현황과 한-베 협력 비전 - 한-베 간 중부지역 디지털·ICT 협력 방안
10:55-11:10	커피 브레이크
11:10-12:40	[2세션] 친환경·인프라 분야 한-베 협력 - 중부지역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과 전망 - 한-베 기업 간 중부지역 비즈니스 협력 전략 - 한-베 간 중부지역 친환경·인프라 협력 방안
12:50-13:50	네트워킹 오찬
14:00-17:30	1:1 비즈니스 상담회

※ 한국어·베트남어 동시통역 제공

※ 한국·베트남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기업인 등이 연사로 참석 예정이며, 세부 구성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참가신청 (온라인)

신청 링크: [HTTPS://FORMS.GLE/8MJXBTPYIUCH6O9J9](https://forms.gle/8MJXBTPYIUCH6O9J9)

문의처

■ 포럼 : 주다낭대한민국총영사관
danang@mofa.go.kr
0236-3566-100

■ 1:1 비즈니스 상담회 : KOTRA 다낭무역관
danang@kotra.or.kr
0236-377-9700 (Ext 222)

주최·주관

주다낭대한민국총영사관
TỔNG LÃNH ĐƯ/QUẢN HÀN QUỐC TẠI ĐÀ NẴNG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클릭시 신청글로 이동



kotra 긴급수출24 무료서비스 안내

kotra 긴급수출24 현지마케팅대행 서비스6종 무료제공

kotra의 긴급수출24 서비스 중
'6종의 현지마케팅대행 서비스가
'22년 12월 31일 까지 무료로 제공됩니다.
관심 기업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샘플 대리 전달

하노이 무역관에서 샘플을 수령하여 특정 바이어에게 샘플을 전달합니다.



VAT 별도 15만원 ➡ 무료

샘플 테스트 조사

하노이 무역관에서 샘플을 수령하여 대상군에 샘플체형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VAT 별도 45만원 ➡ 무료

거래 교신 지원



초기 교신이 진행되고 있는 바이어와의 거래 교신에 회신 돌려 취지 전달, 부연 설명, 의사확인 등이 일정기간 필요한 경우 지원 드립니다.

VAT 별도 15만원 ➡ 무료

대리 면담 지원

출장을 가지 못하는 기업을 대신하여 하노이 현지에서 바이어사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대리 수행해 드립니다.



VAT 별도 45만원 ➡ 무료

거래선 관심도 조사

국내업체가 보유한(연락처 등 既 확보된) 해외업체의 관심 유무를 조사해 드립니다.



1개사 당 VAT 별도 5만원 ➡ 무료



'22년 9월 7일 ~12월 31까지
('22.12. 31 접수 마감)

바이어 실태조사

기적촉종인 바이어 주소지에 방문하여 현장 조사를 하거나 인터뷰를 수행합니다.



VAT 별도 45만원 ➡ 무료



Kotra 무역투자24 사업신청 홈페이지에서 긴급수출24를 검색하세요!



클릭시 신청글로 이동



M&A 지원사업 안내

KOTRA는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M&A를 지원합니다.

해외 M&A는 해외 영업망 확보, 해외생산거점 구축, 신사업 발굴 및 원천기술과 IP 확보와 같은 해외 진출의 모멘텀을 잡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입니다.

KOTRA는 해외 매물발굴부터 인수 후 통합과정까지, ① M&A 전략 수립 지원(시장 및 산업 정보 제공), ② 해외 M&A 매물 제공(타겟 지역 및 산업 분야의 적합한 매물 복수 발굴 지원), ③ 해외 실사 지원 서비스(해외 무역관을 활용한 사전실사 및 본실사 지원), ④ 인수 후 통합과정 지원(PMI 활동 지원), ⑤ M&A 실사비용 지원(인수 완료 기업 대상, 금액과 한도는 별도 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베트남 현지 기업 인수합병 관련 문의(합작법인(JV) 설립 및 청산 문의 포함)가 있으신 기업 임직원분들께서는 KOTRA 본사(투자 M&A팀) 또는 해외 무역관(하노이, 호치민, 다낭)에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M&A 지원 담당자 안내>

- (하노이) 차성욱 팀장 / (T) (84)24-3946-0511 / (E) woogycha@kotra.or.kr
- (호치민) 김서웅 차장 / (T) (84)28-3822-3944(112) / (E) sinica-kim@kotra.or.kr
- (다낭) 김진모 과장 / (T) (84)935-671-359 / (E) jinmokim90@kotra.or.kr
- (투자M&A팀) (T) (82)2-3497-1110 / (E) MnA@kotra.or.kr

해외 매물발굴부터
인수 후 통합과정까지

**KOTRA 투자M&A팀이
함께합니다.**

1

M&A 전략수립지원

타겟 지역 및 산업분야에 대한
원포인트 전략 보고서 제공 등

2

해외 M&A 매물 제공

타겟 지역 및 산업 내 유망매물 발굴



3

해외 실사 지원 서비스

사전실사 및 본실사 지원
(원격 사전실사 대행 포함)

4

인수 후 통합 과정 지원

M&A 완료 후 전반적 PMI 지원

5

M&A 실사비용지원

인수자문비용 지원(3,000만원 이내)

